



HOMO MIGRANS

Vol.03

2010

Nov.

| 특집: “우리 밖’의 인종주의, ‘우리 안’의 인종주의”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Homo Migrans :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Vol.3 (Nov. 2010)

편집이사 : 윤용선, 오경환, 조규태, 이경일, 오영인, 오승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

2010년 11월
ISSN: 2093-3061

<특집논문: “‘우리밖’의 민족주의, ‘우리 안’의 민족주의”>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중심으로 이영아 _____ 5

Racial Formation in South Korea: Some Thoughts on Future Research 임월산 _____ 39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조규태 _____ 61
밀로셰비치와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오승은 _____ 79

<역사와 현장>

한국의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 ‘보노짓 후세인’사건과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혜실 _____ 95

<리뷰>

<서평>
『원수들, 사랑 이야기』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 지음, 열린책들, 2008년 이경일 _____ 111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오경환 _____ 117

<영화평>
지구화와 바이오크로싱: 영화 <구글 베이비 > 염운옥 _____ 121

이민인종연구회

Homo Migrans: Journal of Migration & Ethnic Studies

Nov. 2010
ISSN: 2093-3061

<Articles>

- Young-Ah Lee, "A study of Western's viewpoint on the body of Koreans" — 5
Wol-san Liem, "Racial Formation in South Korea: Some Thoughts on Future
Research" — 39
Kyu-Tae Cho, "Donghak and Cheondogyo's Understanding of the West" — 61
Seung-Eun Oh, "Milosevic and Yugoslav War of Destruction" — 79

<History & Today>

- Hye-sil Jeong, "Racism and Multiculturalism of Korea" — 95

<Reviews>

<Books>

- Kyoung-Il Lee, "Enemies, A love story" — 111
Kyung-Hwan Oh,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 117

<Films>

- Woon-ok Yeom, "Bio-crossing and Globalization" — 121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 Ethnic Studies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논문 ■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 『고요 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을 중심으로

이 영 아 (건국대학교)

I.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우등한 민족이 되기 위한 우성인자의 유전, 우량한 자녀의 생산·양육의 주장이나 위생 경찰제도, 외과수술, 콜레라 예방 및 우두법 등을 통한 육체의 질병 예방과 치료 정책의 도입에서도, 그리고 육체의 단련을 위한 지·덕·체의 균형 있는 교육을 주장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의 담론에서도 발견된다.¹⁾

이러한 몸의 중요성 부각이나, 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의 기저에는 조선인, 더 나아가 동양인(의 몸)이 서구인(의 몸)보다 열등하다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내면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서구 및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밀려들어 온 근대의 큰 물결은 그들을 ‘문명’으로, 조선을 ‘야만’으로 규정지으면서 ‘이성’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을 식민화하고 훈육하는 논리들을 점차 만들어 갔다는 것이다. 육체/정신, 여성/남성, 처녀지/개밭, 빈곤/자본, 야만/문명 등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하여 타자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의 변종이다. 근대 이래 서구인들은 자기 이외 지역(특히 동양)을 ‘여성적=감성적=수동적’

1) 이영아, 『육체의 탄생』 (서울: 민음사, 2008).

인 존재로 여겨왔으며, 이와 동시에 ‘미개척지=야만적=정체적’인 문명으로 간주해왔다.²⁾

사이드(Edward W. Said)는 푸코의 ‘지식/권력의 연계관계’라는 개념들을 차용하여,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 담론을 통하여 구성된 오리엔탈리즘의 허상을 폭로하고, 이러한 담론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의지를 파헤치려고 하였는데³⁾, 사이드 이래로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담론에는 지배대상으로서의 동양과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양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⁴⁾, 소위 ‘오리엔탈리즘’적이었다는 것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의 ‘정설’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조선과 조선인을 목격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태도 역시 다른 동양에 대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별 방문자로서의 서양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조선이 모두 오리엔탈리즘으로 환원 가능할까? 당시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 조선인의 몸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선형적으로 전체해 버리는 것과 같이 미개한 땅, 원시적, 여성적, 육체적인 곳이기만 했을까? 또한 그들이 동양 삼국(한국, 일본, 중국)을 모두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세 나라에서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였을까,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였을까? 이와 같은 다양한 물음들이 그동안에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아왔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구인의 조선인의 몸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보고 배운 것을 내부로 들여오려 했던 조선의 엘리트들의 서구와 근대에 대한 동경이 동양인에게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면화 이전의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조선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조선의 엘리트 뿐 아니라 민중들에게까지 이러한 ‘조선적 오리엔탈리즘’을 실제로 겪고 이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추정된다.

2) 이승환,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유교담론의 지형학-근대 이후 유교 담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서울: 푸른숲, 2004), p.21.

3) Edward W. Said, *Orientalism*,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2000).

4)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역 (서울: 이산, 1997).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조선적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해 일반화되어있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당대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체험과 체감에 의한 조선(동양)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다. 즉 오리엔탈리즘의 조선적 특수성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2.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여행기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각국에서 파견된 다양한 서양인들이 조선땅을 밟았다. 이때 조선을 찾은 서양인은 수백 명에 이르는데 외교관, 교육자, 의사, 군인, 상인, 선교사 등이 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비중이 컸다.⁵⁾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하멜 표류기』(1688)이후 달레(Dallet)의 『한국교회사』(1874)와 오페르(Oppert)의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1880) 등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이 저술들은 단순한 여행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조선에 대한 선구적 이해와 조선에 체류했던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많은 서양인들의 한국 관계 저술이 쏟아질 수 있었다.⁶⁾

이를 가장 많이 집대성한 것이 집문당에서 신복룡 교수의 역주로 출간된 <한말 외국인 기록>시리즈이다.⁷⁾ 최근 살림 출판사 등에서 출간 중인 <

5)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 여성의 삶」,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서울: 국학자료원, 2003), p.229.

6) 같은 논문, p.230.

7) 집문당에서 ‘한말 외국인 기록’시리즈로 발간된 자료를 그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신복룡 역, 『대한제국 멸망사-한말 외국인 기록1』, (서울: 집문당, 1999); F.A. McKenzie, *Tragedy of Korea*, 신복룡 역, 『대한제국의 비극-한말 외국인 기록2』(서울: 집문당, 1999); W. E. Griffis, *Corea:the Hermit Nation*,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한말 외국인 기록3』, (서울: 집문당, 1999); H. N. Allen, *Things Korean*, 신복룡 역, 『조선건문기-한말 외국인 기록4』(서울: 집문당, 1999); J.S. Gale, *Korea in Transition*, 신복룡 역, 『전환기의 조선-한말 외국인 기록5』, (서울: 집문당, 1999); C.W. Kendall, *The Truth about Korea*, 신복룡 역,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한말 외국인 기록6』(서울: 집문당, 1999); F.A. McKenzie, *Korea's Fight of Freedom*, 신복룡 역, 『한국의

그들이 본 우리>⁸⁾시리즈도 비슷한 기획물이며, 이 외에도 조선을 방문했

- 독립운동-한말 외국인 기록7』, (서울: 집문당, 1999); O. N. Denny, *China and Korea*, 신복룡 역, 『청한론 외-한말 외국인 기록8』 (서울: 집문당, 1999); Paul G. von Moellendorff, *A Reply to Mr. Denny*, 신복룡 역, 『필렌도르프 자전 외-한말 외국인 기록9』 (서울: 집문당, 1999); Jean-Bapitiste Du Halde etc., *Kingdom of Korea*, 신복룡 역, 『하멜표류기 외-한말 외국인 기록10,11,12』, (서울: 집문당, 1999); E.G. Kemp, *The Face of Korea*, 신복룡 외, 『조선의 모습-한국의 아동생활-한말 외국인 기록13,14』 (서울: 집문당, 1999); L.H. Underwood, *15 Years Among Top-knots*, 신복룡 외역, 『상투의 나라-한말 외국인 기록15』 (서울: 집문당, 1999); W.R. Carles, *Life in Korea*, 신복룡 역, 『조선풍물지-한말 외국인 기록16』 (서울: 집문당, 1999); G.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신복룡 역, 『서울풍물지-한말 외국인 기록17』 (서울: 집문당, 1999); W.F. Sands, *Undiplomatic Memories*, 신복룡역, 『조선비망록-한말 외국인 기록18』 (서울: 집문당, 1999); A.H. Savage-Landor, *Corea: Land of Morning Calm*, 신복룡 외 역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한말 외국인 기록19』 (서울: 집문당, 1999); E.J. Oppert, *A Forbidden Land: Corea*, 신복룡 외 역, 『금단의 나라 조선-한말 외국인 기록20』 (서울: 집문당, 2000);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한말 외국인 기록210』, (서울: 집문당, 2000); S. Bergman,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신복룡 역, 『한국의 야생동물지-한말 외국인 기록220』 (서울: 집문당, 2000); H.B. Drake, *Korea of Japanese*, 신복룡 역, 『일제시대의 조선 생활상-한말 외국인 기록230』 (서울: 집문당, 2000).
- 8) 살림출판사의 ‘그들이 본 우리’ 시리즈는 현재까지 15권이 출판되어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Luis Fróis, *Historia de Japon* 양윤선 외 역, 『임진난의 기록-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서울:살림, 2008.); Alfred Edward John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조행복 역, 『백두산으로 가는 길-영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기』 (서울: 살림, 2008); Minerva L. Guthapfel, *The Happiest Girl in Korea*, 이형식 역, 『조선의 소녀 옥분이-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 (서울: 살림, 2008); Max von Brandt, *Ostasiatische Fragen. China, Japan, Korea*, 김종수 역,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독일 외교관의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 중국, 일본』, (서울: 살림, 2008.); 김장춘 편,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Korea Illustrated by British Weeklies 1858-1911』 (서울: 살림, 2008.); Félix-Clair Ridet, *Ma Captivite dans les Prisons de Seoul*, 유소연 역, 『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서울: 살림, 2008); Alleyne Ireland, *The New Korea*, 김윤정 역,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 (서울: 살림, 2008); Rudolf Zabel, *Meine Hochzeitsreise Durch Korea Whrend Des Russisch-Kapanischen Krieges*, 이상희 역,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저널리스트 차벨, 러일전쟁과 한국을 기록하다』 (서울: 살림, 2009); Zenone Volpicelli, *The China-Japan war:Compiled from Japanese,Chinese,and foreign sources*, 유영분 역, 『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조선 땅에서 벌어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서울: 살림, 2009);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조은미 외 역, 『한국의 역사와 문화-프랑스 문헌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 (서울: 살림, 2009); Henry J. Whigham,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이영옥 역(서울: 살림, 2009);

던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과 이에 대한 국역 출판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많다.⁹⁾

그런데 개화기의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조선 정치 및 사회와 조선인에 대한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들의 방대함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다.¹⁰⁾ 이는 이 시기의 외국인들에 의해 기술된

George W. Gilmore, *Corea of To-Day*, 이복기 역,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 (서울: 살림, 2009); Ellasue Wagner, *Korea : the old and the new*, 김선애 역, 『미국인 교육가 엘라수 와그너가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 1904~1930』 (서울: 살림, 2009); John Ross, *History of Corea*, 홍경숙 역, 『존 로스의 한국사-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역사』 (서울: 살림, 2010); CH. Martin-Henri Zuber, *Une Expedition en Corée*, 유소연 역, 『프랑스 군인 쾨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 (서울: 살림, 2010).

- 9) 김영자 편, 『조선 왕국 이야기-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서울: 서문당, 1997);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김석중 역, 『10일간의 조선 항해기』 (서울: 삶과꿈, 2003); Sherwood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 (서울: 좋은씨앗, 2003); Hendrick Hamel, *Hendrick Hamel's report*, 유동익 역, 『하멜 보고서』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3); Charles Louis Varat, *Deux voyages en Corée*, 성귀수 역, 『조선기행』 (서울: 눈빛, 2006); Ernst Oppert, *Voyage to the Corea*, 한우근 역, 『조선기행』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3); Carlo Rossetti, *Corea e coreani*, 서울학연구 역, 『꼬레아 꼬레아니』 (서울: 숲과나무, 1996); Hippolyte Frandin, *(En) Corée*, 김상희 외 역,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서울: 태학사, 2002); Georges Duroc, *Pauvre et douce Corée*, 최미경 역,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서울: 눈빛, 2006); Frederic Boulesteix, *Pauvre et douce Corée*, 김정연 외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서울: 청년사, 2001); 경기도박물관 엮음, 『먼 나라 꼬레』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서울대학교박물관 엮음, 『그들의 시선으로 본 근대』 (서울: 눈빛, 2004); George Rose,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 2004); Percival Lawrence Lowell, *Choso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조경철 역,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예담, 2001); H. N. Allen,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Jack London, *(La)Coree en feu*, 윤미기 역, 『잭 런던의 조선 사람 엿보기』 (서울: 한울, 1995); Daniel Lyman Gifford, *Every-day life in Korea*, 심현녀 역, 『조선의 풍속과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W. A:son Grebst, *I Korea*, 김상열 역,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전 한국을 걷다』 (서울: 책과함께, 2005); H. Lautensach, *Korea*, 김중규 외 역, 『코레아 1』 (서울: 민음사, 1998); Norbert Webe, *In den diamantbergen Koreas*, 김영자 역, 『수도사와 금강산』 (서울: 푸른숲, 1999); G.N.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라종일 역, 『100년전의 여행 100년후의 교훈』 (서울: 비봉출판사, 1996); 박영숙 편, 『서양인이 본 금강산』 (서울: 문화일보, 1998).

10) 윤경로, 「Homer B. Hurbert의 한국관-한국민족과 역사이해를 중심으로」,

기록들이 학계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문학이나 한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구미 문학이나 서양사학을 전공하는 학자들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기 힘든 이중성을 가진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에게서 도외시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차츰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국학자료원, 2003),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국학자료원, 2004), 『개화기 대외 민간 문화교류의 의미와 영향』(국학자료원, 2005)의 연속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개화기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서양의 민간문화교류의 실상을 구명하고자”한 연구이다. 이 단행본 시리즈에 실린 여러 논문들 중에서 개화기 서양과 한국의 교류와 관련된 논문들은 중요한 참조가 될 만하다.¹¹⁾ 이들 논문들에서는 개화기에 한국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특정 주제(의례, 여성, 한

『한국사상』, 제18호(1981); 박윤희, 「서지학적 추적을 통한 한국과 서양과의 역사적 연구」, 『한국학문헌 연구의 현황과 전망』(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정동귀, 「미국인의 대한국관-태도」, 『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념논총』(서울: 동국대학교, 1985);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선교사의 한국관-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중심으로」, 『일본식민지 지배 초기의 사회분석』 1(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이광린, 「헨리히의 한국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1989); 이필영,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서울: 한남대 출판부, 1989); 손정숙, 「구한말 헨리히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22집, (1995);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서울: 책세상, 2002); 박지향,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영국연구』, 제4호, (2000); 박지향, 「비숍과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제10호, (2001); 박대현, 『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련 서양서지』(서울: 호산방, 1996); 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근대사회」, 『이화사학연구』, 제28집, (2001);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서울: 풀빛 2002); 유영렬,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4).

- 11) 여기에 실린 논문 중에서 서양인의 조선,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오인영, 「서양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 여성의 삶」; 윤승준, 「개화기 한국을 소재로 한 영문소설」(이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저,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 국학자료원, 2003. 수록 논문); 김현수, 「19세기말 영국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의 변화상」; 오인영, 「미국여성의 개화기 한국체험」; 송재용, 「개화기 서양인의 한국 의례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이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저, 『개화기 대외 민간 문화교류의 의미와 영향』, 국학자료원, 2005. 수록 논문) 등을 꼽을 수 있다.

국 개항기의 변화상 등)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주제론적 접근법과 태도를 같이 한다.

그동안의 이 분야 연구는 한국의 역사상에서나 서양사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일부 서양인들 개인의 행적과 기록들을 정리하고 한국관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¹²⁾ 분석 대상을 확대¹³⁾ 하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언급을 하였는지를 원문을 해석하여 내용별로 분류, 소개하는 서지학적 분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 무엇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서양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선을 ‘오리엔탈리즘’으로 모두 환원함으로써 그 안의 다기한 목소리와 균열의 지점들을 소거시켜버린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조선을 바라 본 타자의 시선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학계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조명을 촉구하는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이제는 보다 각론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주제의식에 따른 이들 자료의 검토,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뭉’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제국주의의 열풍이 불

12) 이와 같은 개별 서양 인물들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조정경, 「J.S. Gale의 한국인식과 재한활동에 관한 일 연구」, 『한성사학』, 제3호 (1985).; 김진관, 「윌헬름도르프의 조선문명개화론」, 『역사교육』, 제16집, 역사교육연구회 (1989); 이광린, 「‘비숍’ 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제71-72 합본호 (1991).; 한규무, 「개일의 한국인식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1889~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1995); 김현숙, 「구한말 고문관 데니(O.N. Denny:德尼)의 『청한론』 분석」, 『이화사학연구』, 제23-24 합본호 (1997); 윤경로, 「Homer B. Hurbert의 한국관-한국민족과 역사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사상』, 제18호 (1981).;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선교사의 한국관-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중심으로」, 『일본식민지배초기의 사회분석』 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이광린, 「헐버트의 한국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1989);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22집, 이화사학연구소 (1995); 박지향, 「비숍과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제1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1) 등이 있다.

13) 홍이섭, 「벽안에 비친 한국-구미인의 한국연구」, 『한국현대사』, 제6호, 신구문화사 (1971); 여동찬, 「개화기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연구』, 제5호 (1987).; 박대현, 『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련 서양서지』 (서울: 호산방, 1996); 최덕수,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제30호 (1997).;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서울: 풀빛, 2002).; 유영렬,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4).

14)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역사와 현실』, 제34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p.162.

던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몸을 묘사하는 과정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누가’, ‘무엇을’ 그리고 ‘왜’ 묘사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¹⁵⁾ 특히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오리엔탈리즘으로 환원시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다층적인 목소리들을 최대한 선입견 없이 살펴보고, 오히려 그들이 조선인과 ‘차별화’보다 ‘동일시’하려 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¹⁶⁾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주목한 저작은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신복룡 역주, 집문당, 1999)이다.¹⁷⁾ 이 저작이 눈에 띄는 이유는 첫째로, 그의 방문 목적이 선교나 외교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로 이 책이 화가인 그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랜도어는 종교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행가였던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여행을 좋아하는 화가일 뿐이었기 때문에¹⁸⁾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조선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선교사나 외교관 또는 탐험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사전지식으로서 종교나 풍습, 제도, 또는 한국에의 투자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음의 서술과 같은 부분이 종종 등장하여 후발 조선 여행자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띠고 있었다.

15) John Pultz, *The Body in Photography*, 박주석 역, 『사진에 나타난 몸』(서울: 예경, 2000), p.21.

16) 이 작업은 본 논자의 선행 연구인 「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선 고찰-잡지 <청춘>,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9집(2010)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후에 상술할 것이지만 1910년대를 즈음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 또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 진 제국주의적 시선을 내면화하였다. 그렇다면 서양인들도 조선인을 보면서 인종주의적 차별론에 근거하여 조선인의 몸을 무조건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을까? 이것이 이 논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17) 랜도어, 오페르트, 지볼트를 대상으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살펴본 논문으로 김종갑,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2009. 8.)가 있다. 본 논문과 논의 대상 및 논지에 있어서 몇 부분 유사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영문학 및 철학적 관점에서 몸 담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논의의 전개방식과 논점에 차이가 있다.

18)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p.110.

조선의 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커다란 어려움은 만약 그가 친구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받지 않았을 경우에 숙박할 장소를 찾는 것이다. 군인들과 날뿔팔이꾼들을 위한 가장 수준 낮은 주점은 도박판과 강도의 소굴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호텔은커녕 여인숙조차도 없다. 만약 그때 당신이 밤을 지새울 보금자리가 없다면, 당신은 속편하게 가장 훌륭해 보이는 집대문을 두드려야만 한다.(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신복룡 역주, 집문당, 1999, p.92. 이하 랜도어 책의 경우 면수만 표기)

당신(조선을 여행할 독자-인용자 주)은 자신이 조선에 잘 상륙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풍물이 조선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당신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나는 물론 단지 비유적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조랑말을 당신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p.36.)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그린 그림 총 37점과 함께 상재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서양인들의 조선 방문 기록들이 대부분 글과 함께 사진을 싣는데 반해 랜도어는 자신이 직접 그린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다양한 소재의 그림을 실었다. 랜도어는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인과 조선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최초의 서양화가이다.¹⁹⁾ 그리고 그림이란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자료들과는 다른, 서양인의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시각적 재현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수많은 사진기록물을 남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²⁰⁾ 개항 초기에 세계에 알려지게 된 조선인에 관한 사진은 주로 일본 사진가들에 의해서 촬영된 것들이었는데, 하야시 타케이치(林武一)가 1888년 서울주재 일본공사관에 부임하게 되면서 촬영한 사진을 모은 『조선국진경』(1892)에 실린 조선인 사진이 가장 대표적이다.²¹⁾ 하야시는 사진관 스튜디오에서 배경은 제거하고 바닥에 깔 카펫이나 수풀과 같은 기초적인 소품만을 설치한 채 연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조선인을 특정한 재현방식으로 그려냈다(그림-1). 그리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서구세계에 조선인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이러

19) 송영달,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과 삶」,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서울: 책과 함께, 2006), p.9.

20) 이경민, 『제국의 렌즈』 (서울: 산책자, 2010).

21) 김희곤, 「하야시 타케이치와 조선국진경」,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서울: 안동대박물관, 1997), p.140.

한 이미지들이 1900년대 초에 알레베르가 제작한 사진엽서나 언더우드(1904), 프랑댕(1905), 앵거스(1905), 게일(1909) 등의 책에서 반복해서 게재됨으로써 하야시가 표상한 조선인의 사진이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조선인을 바라보는 유일하고 상투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²²⁾



(그림-1) 하야시 타케이치(林武一)의 『조선국진경』에 실린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조선인 사진(출처: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안동대박물관, 1997, p.135.)

19세기 유럽의 식민정책 내에서 유럽인들은 전형성을 띤 사진들을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의 유색인종의 문화를 자신들과 그 문화를 정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타자를 어떠한 전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자기동일성을 형성하고자 했던²³⁾ 서양의 근대적

22) 이경민, 「프랑댕(Frandin)의 사진 컬렉션을 통해 본 프랑스인의 한국의 표상」, 『먼 나라 꼬레(Corée)』 (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232-233.

23) 최원, 「인종주의라는 쟁점-푸코와 발리바르」, 『문학과 사회』, 75호 (2006.8.)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인종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사진술은 사진에 찍힌 인물들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²⁴⁾



(그림-2)서당의 모습을 연출해서 찍은 사진과 (그림-3) E. 와그너가 그린 그림.

24) John Pultz, 『사진에 나타난 몸』, p.21.

서당 훈장과 학동들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들 중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전형적인 ‘연출사진’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사진은 1894년 발행된 조지 커즌(George Curzon)의 『극동의 체문제(*Problems of the Far East*)』에도 수록되어 있고,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94년 8월 18일자를 통해서도 진즉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⁵⁾ 1911년 출판된 와그너의 책에 실린 그림이 위의 사진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렸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림-4)프랑스 화가 생 쏘베의 1806년판 채색 판화로 ‘아시아 왕국의 민족들’이란 시리즈의 『한국의 남녀』라는 그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조선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25)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사진해설판』 (서울: 하늘재, 2009), p.287.

그런데 이처럼 이 시기 제국주의적 사진이 그 복제 가능성과 전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촬영 방식이 획일화되고 상투화되었던 데 반해,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 시선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성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다. 물론 이미 인화되어 알려진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복제한 경우처럼 그림 역시 당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그림-2, 3 비교)²⁶⁾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온 피사체는 모두 기계적으로 담아내는 사진과는 달리, 그림은 순수창작품일 경우 화가의 생각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화가 생 쏘베가 그랬다는 ‘한국의 남녀’ 그림처럼 조선인의 실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는 것도 그림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그림-4)

랜도어도 자신이 직접 만나서 부딪혀본 조선과 조선인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외국인 사진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더구나 랜도어의 경우 이 책에서 그림과 함께 자신의 관찰, 경험을 글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본 조선과 조선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고찰하는 데 있어 랜도어의 저작은 차후 보다 전방위적인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랜도어가 바라본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랜도어는 조선을 방문했을 때 많은 시간을 거리에 나가 사람들이나 조선의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조선인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는 일에 할애했다. 서양인이 서울의 한복판에 멈춰 서서 전통화법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은 조선인들에게 매우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랜도어의 주위에는 항상 그의 그림을 구경하는 조선 사람들로 붐볐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조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 랜도어의 사교는 외교나 선교등의 공식적인 목적의식이 없이 직접 사람들과 마주

26) 대표적으로 E. Wagner가 『한국의 아동생활』에서 함께 게재하고 있는 자신의 그림들이다. 여기서의 그림들은 소위 ‘스튜디오사진’으로 불리는 하야시 이래의 연출사진을 그림으로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새로운 재현방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E. Wagner, 『조선의 모습-한국의 아동생활-한말 외국인 기록13,14』의 그림 참조.

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랜도어 자신이 아닌 조선인들이 먼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나는 서울에 몇 달 머무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왜냐하면 나는 조선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그들과 가능한 많이 어울렸기 때문이다.(p.91)

몇 달 동안 내가 날마다 거리에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나를 잘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예술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술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다.(p.67.)

나는 어느날 평소대로 서울의 동대문 밖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림이 점점 실물에 가까워지자 구경꾼들은 경탄을 감추지 못하고 나의 붓놀림 하나 하나에 주목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일본인들처럼 조선 사람들도 드로잉과 묘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나는 구경꾼들이 보여 준 관심에 대단히 만족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작품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p.74)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개항이 되었을 때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을 조선인들이 전적으로 배척하고 무시하거나, 피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낯선 외양을 가진 서양인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감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1888년 6월에 일어났던 ‘영아소동(baby riots)’처럼, 외국인들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먹는다는 소문으로 인해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서양인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한 사건도 일어났다.²⁷⁾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서양인을 오해하거나 배척했던 것은 아니다. 이 ‘영아 소동’ 사건은 외국인에 의해 사진에 찍힌 적이 있던 어린아이들이 연달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서양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죽여서 사진을 만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선교의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여

27) 정성화 · 로버트 네프,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서울: 푸른역사, 2008), pp.47~53.

그 시체로 약을 만든다는 유언비어도 가세했다.

이 소동은 미국 해군까지 서울에 파견되어 더 큰 무력 갈등으로 비화될 위기에까지 이르렀다가, 고종이 백성들에게 이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처럼 서양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문명의 이기(利器)때문에 조선인들에게 때때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랜도어의 경우에도 양가집 규수들의 경우 자신을 보면 ‘양귀(洋鬼)’라는 생각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술회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서양인을 거부감 없이 대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며칠 머무르는 동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든 여성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기억난다. 내가 지나칠 때마다 내가 만난 처녀들이 집에 도착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져, 나는 꿈을 꾸고 있거나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 마을 여성들의 소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현듯 그것은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속임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조선 사람 친구에게 그 문제에 대해 묻고 나서야 조선의 여인은 외국인 남자와 마주치게 되면 어떤 집이든 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 여인의 도덕적 규범의식은 높았던 반면, 외국인 남성을 양귀(洋鬼)로 보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기 때문이었다. (pp.65~66)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자주, 조선인들은 서양인의 외양에 대해 종종 큰 관심과 호감을 표하였다.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들에 대한 번역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말 외국인 기록’ 시리즈(집문당)의 역주자 신복룡 교수는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에서 이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서세동점기의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을 기피했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서구인과의 갈등은 지배 계급의 오만이 빛은 실수일 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는 아니었다”²⁸⁾고 말한다.

28)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p.47. 이 책에서 신복룡 교수는 1816년 영국인 선장 바배질 홀(Basil Hall: 1788~1844)이 조선을 탐사하기 위해 백령도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경험을 적은 『조선 서해 탐사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of the West Coast of Corea)』(1818)을 예로 들며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홀은 조선의 아이들이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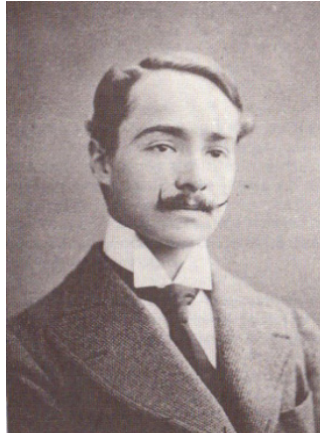
특히 백인 어린 아이들의 외모는 조선인들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다. 정동교회(현재의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아내 릴리안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궁궐은 물론 누추한 오두막집에 이르기까지 서양 어린이들을 보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거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거나 또는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한국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²⁹⁾고 할 만큼 서양인의 외모는 서양인을 직접 접한 조선인들에게 호감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랜도어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보다는 호감을 주었던 듯하다. 여기에는 그가 서울 거리에서 들고 있었던 것이 총, 칼이나 카메라같은 문명의 이기(利器)가 아니라 붓과 연필이었다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어기제를 해제시켰다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조선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은 ‘변장한 조선 사람’같았다는 점(그림-5)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유럽식 의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선 사람으로 오인됐기 때문에 나는 「변장한 조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새로운 이름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p.90)

과란 눈과 긴 코를 보고 신기해하며 쫓아왔던 일, 그 지역 현감 일행이 자신과 술을 마시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로 사귀려 한 일, 주민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일 등을 기록해 놓았다.

29)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1908), pp.116~117; 정성화·로버트 네프,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p.69에서 재인용.



(그림-5)세비지 랜도어의 초상 사진

랜도어가 자신이 조선인의 외모와 닮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음에도, 실제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기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위의 랜도어 사진을 보면 그의 외모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서양인의 외모와 다르다고(동양인 같다고) 느낄만한 면면은 많지 않다. 흑백의 사진이지만 밝다고 짐작되는 살빛, 쌍꺼풀진 눈, 높은 코, 두상의 골격 등 대부분이 서양인의 일반적인(?)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는 ‘변장한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이에 대한 재미있는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 랜도어가 바라본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에 관한 언급이다. 랜도어는 조선인이 백인종인 ‘코카서스족’, ‘아리안족’의 후예인 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무리의 한국인들을 눈여겨보면 그들 사이에 거의 백인과 같은 사람과 그 특징이 아리안족에 아주 근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리안족은 그 나라에서 상류계층에 속하고 있다.(p.53)

만일 당신이 조선의 왕족을 예로 든다면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왕족, 특히 왕비 가문인 민씨 집안은 코카서스족과 같은 백인이며 그들의 눈은 전혀 치켜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의 눈매와 같이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고관 대작의 가문 중의 일부도 역시 유럽인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p.54)

일단 아름답게 생긴 한 처녀를 택하기로 하자. 슬픈 듯한 모습의 작은 달걀형의 얼굴을 가진 그를 보라. 그는 아치형의 눈썹과 긴 속눈썹 때문에 타원형의 새까만 눈이 부드러워 보인다. 약간 덜 편평한 것이 낫겠지만 그는 곧은 코와 달콤한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며 눈처럼 하얀 예쁜 아랫윗니를 드러내고 있다. 당신이 그를 처음 보게 된다면, 그의 행동을 상당히 고결하고 침착하게 느끼게 되어 당신은 그를 거의 작은 조상(彫像)으로 여길 것이다....유럽 여인의 아름다움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체형이 빼어나지도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극동 민족의 여성들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보다 예술적으로 차려 입지만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밝은 살빛과 위에 열거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조선의 여성은 나에게 유럽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p.68)

이처럼 랜도어는 조선인이 백인들과 비슷한 인종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백인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인과, 또는 조선인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외모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급들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조선인에게 백인과 비슷한 외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계층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층계급의 경우에는 몽골계 인종으로 보이며, 심지어 흑인계통인 듯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막노동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나 소아시아 사람만큼이나 얼굴색이 검은 인종들을 이 나라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p.53)

물론 중류계층은 비록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평상 표본보다는 약간 더 세련되고 체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몽골리안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방의 이웃인 만주족처럼 그렇게 강인하고 키가 크지는 않으나 많은 면에서 공통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구려인과 부여족에 의한 빈번한 침략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반면에 보다 하층계급 사이에는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징 연구

검은 눈이 거의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광대뼈는 튀어 나왔다. (p.54)

이 책에 실린 그의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보면 그가 상류계층의 외모와 하층계급의 외모를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림-6, 7) 평민 이하의 조선인의 모습



(그림-8)물장수의 옆모습



(그림-9)민영환의 초상화

즉 상투를 튼 남자(그림-6)와 떠꺼머리총각(그림-7), 그리고 물장수(그림-8) 등 중하층계급을 그린 그림에서는 얼굴빛을 매우 어둡게, 눈은 약간 돌출되면서 치켜 올라간 듯하며 코는 낮게 그리고 있다. 반면 민영환(閔泳煥, 1861~1905 그림-9)과 김가진(金嘉鎭, 1846~1922 그림-10) 등 상류계급의 초상화에서는 밝은 빛의 얼굴, 움푹 꺼지고 아래로 약간

쳐진 눈매, 오뚝한 코, 가름한 얼굴형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자세하게 그린 김가진의 초상화에서는 랜도어가 왜 조선인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서양인의 외모적 특징 (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엿보인다.



(그림-10) 김가진의 초상. 랜도어는 그의 그림 솜씨에 탄복한 조선인들에 의해 소문이 나서 왕실에까지 들어가 여러 왕족, 양반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물론 이러한 그림들을 볼 때나 그의 글을 읽을 때 간과해선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랜도어가 본,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글과 그림만을 근거로 실제로 왕족이나 양반계층이 모두 백인종의 외모에 가까웠을 것이라거나, 하층민들이 흑인종의 외모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일 것이다. 따라서 랜도어의 이와 같은 시각을 당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이 실제 어떠했는지를 증명할 ‘사실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각적 재현에 특기를 가진, 즉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표현력에 있어서

남들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서양인의 눈에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그가 방문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비교해본 결과 갖게 된 생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한국인은 곧 중국인이어서 체격이나 용모가 서로 꼭 닮았으며, 만일 중국인을 닮지 않았다면, 다른 이웃인 일본인을 닮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그 어느 편도 닮지 않았다. 물론 이 나라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일반적인 용모가 스쳐 간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는 했다. 내가 구별하려는 특성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특성만큼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은 분명 몽골족의 다른 나라 국민들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몽골 종족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종족 중에서도 완전히 특징 있는 지파를 형성하고 있다.(...)체격과 혼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선만큼 흥미를 끄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것은 마치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이주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왔으며 결코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이론을 어느 정도 반증해 줄 것이다.(...)어떻든 종합해 보면 한국인은 잘생긴 인종이다. (pp.53-54)

랜도어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은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유난히 다인종성이 강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에 인용되었던 글³⁰⁾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조선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체격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사실 조선인 내부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다는 것이나, 조선인의 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등하다’, ‘아름답다’는 점을 언급한 서양인은 랜도어 한 사람만이 아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양인들에게서 그러한 언급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물론 중류계층은 비록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평상 표본보다는 약간 더 세련되고 체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몽골리안형인 것은 사실이다.”(54면), “사람들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보다 예술적으로 차려 입지만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p.68)

조선 사람은 일본인에 비해 체격이 더 크다. 그러나 대부분 5.5.피트를 넘지는 못하고 건장한 체구와 균형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활기차고 민첩하다. 그들의 용모는 일반적으로 몽골족의 인상을 연상시킨다. 즉 넓고 거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튼튼한 턱, 넓적하고 찌그러진 듯한 콧부리와 코, 두터운 입술을 지닌 큰 입,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매, 검고 술이 길으며 때로는 적갈색을 띤 머리털, 짙은 눈썹, 가는 수염....그러나 조선 사람은 용모에서 분명히 두 종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조선 사람들의 콧부리가 치솟아 있는 반면에 코끝은 다소 처져 있어서 그 용모가 코카서스족에 가깝다. 그러나 눈의 생김새는 유럽인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는 광대뼈가 움푹 들어가고 몽골족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 측면의 뚜렷한 선이 나타난다. (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Nippon*, ; E.J.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신복룡역, 집문당, 2000, p.27에서 재인용)

조선 사람의 인상을 보면 중국인과는 다른 종족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두 민족의 혼혈족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사람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더 크고 건장하며 대체로 활달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민족에 비해 훨씬 더 몽골이나 북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을 연상시킨다.(...)나는 그(지볼트-인용자 주)가 내린 결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인상이 고매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는데, 만일 그들이 유럽풍의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잘 생기고 준수한 용모와 장밋빛의 피부 그리고 적갈색의 머리털과 푸른 눈동자를 가진 많은 어린이들은 유럽의 어린이들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빈번하게 접한 후에야 나는 조선 사람들을 유럽인의 후예로 여겼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E.J.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신복룡역, 집문당, 2000, pp.26-29)

평균 이상의 신장과 힘든 일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지닌 한국인들은 우수한 종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신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다른 면을 보게 된다. 우수한 체력에 비해 정신력은 그에 못 미치는데, 그들은 분명 최상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마치 너울처럼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동방인 몽고계와 남방인들의 교접에 의해 생겨난 탓으로 한국 민족 또한 너무나 다른 두 개체간의 잡종 혈통에 가해지는 조기 절멸의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생물학적 법칙의 가혹한 운명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나 지금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쇠잔한 상태이다.(Carlo Rossetti, 『꼬레아 꼬레아니』, p.10)

그(이폴리트 프랑탱-인용자 주)의 의도는 우선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명백한 차이점을 기술하면서, ‘자연인’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아리안족과 몽골족의 후예이다. 아리안족에게서는 흰 피부와 큰 키, 건장한 체형, 노란 머리칼과 수염을 물려받았다. 한국인은 자신의 육체적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자만심은 그들의 용기를 한층 자극한다. 날카로운 눈매, 유연한 몸동작은 몽골족으로부터 물려받았다.”(Frederic Boulesteix,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 서양인이 본 한국인 800년』, p.176)

위와 같이 다양한 서양인들이 조선인의 외모에 대해 다양한 인종의 후예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랜도어가 조선인을 다인종 국가라고 본 것이 특수한 생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인이 여러 인종의 혼합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국 단일민족설의 허상에 대한 논의에도 맞닿아 있다. 1933년 이광수의 “조선 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인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라는 「조선민족론」(동광, 1933. 7)의 언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단일민족 신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³¹⁾ 이전에는 조선인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이 여러 명의 서양인들의 눈에 조선인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랜도어의 경우 계층의 문제로 환원하여 이해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문제적이다. 상류층일수록 코카서스족에 가깝고 하층민일수록 흑인종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서양인들과는 달리 랜도어에게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는 조선인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듯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신빙성이

31) 박찬승, 『민족, 민족주의』(서울: 소화, 2010).

낮은 것이다. 그가 하층민을 흑인에 가깝게 얼굴이 검다고 생각한 것은 야외에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을려서이거나 상류층에 비해 자주 씻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계층에 따라 인종이 분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상류층이 백인종에 가까워 보인다는 랜도어의 생각은 그에게 ‘미’의 기준이 백인종이었음을 말해준다. 그가 자신을 ‘변장한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았듯 그의 사고 깊은 곳에는 백인종, 유럽인의 몸이 황인종, 흑인종, 조선인의 몸보다 우월하다는 백인우월주의가 잠재하고 있었다. ‘상류층=백인종’의 등식화의 매개는 ‘고귀함’, ‘우월함’,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인 중에도 우리만큼 우월한 인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4. 랜도어의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조선인들의 서양인의 몸에 대한 동경의 의미

랜도어의 이와 같은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의 사고는 랜도어 개인의 것이며 완벽히 신뢰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20세기 이후 조선인들에게 내면화되었던 백인종에 대한 동경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준다.

실제로 조선인들은 20세기 초 서양인들 못지않은 (백인우월주의적) 인종주의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청춘』, 『학지광』 등과 같은 1910년대 잡지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지식인들은 서양 또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주의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문명 「우등인종과 야만」 열등인종이 몸을 통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청춘』은 제1호에서부터 「인종」이라는 글을 통해 학자별 인종 분류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인종분류학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듯한 논조를 띠고 있으면서도 글 중간에 ‘야만인의 습속’이라는 제목 하에 각각 ‘콩고地方人 夫婦’와 ‘셀론도 西北山中 베達人’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³²⁾ 「세계 일등의 야만인」에서는 “사람으로 생겨나기는 다 마찬가지로 현금 지구상 인류간에는 온갖 점에

32) 「인종」, <청춘> 제1호, 1914.9. p.27, p.33 사진 참조.

비상한 층등이 있음을 보겠도다. 구주각국의 인류가 기껏만껏 더할수업는 인지와 천혜의 결과로 「문명」이라는 맛조흔술에 취흥이 잠잠하야 좁은 세계를 넓게 험쓸고 단이는가하면 아불리가 아미리가내지며 남양군도의 토인중에는 우리가 수백년 좀더드리켜 수천년이전에 경험이 있는 극히 幼穉한 극히 참혹한 금수나 얼마틀리지안이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온전히 남아 있스니”³³⁾ 그러한 금수와 같이 미개한 야만인으로 호주의 토인(‘濠太利亞土人’)을 들면서 그들의 지리적 환경, 외모, 풍속, 습관, 지적수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시기 잡지들은 다양한 글과 사진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인종주의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문명화의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 차별론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진리인 듯 받아들여졌다.³⁴⁾

33) 「세계 일등의 야만인」, <청춘> 2호, 1914.11.

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영아, 「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선 고찰-잡지 <청춘>, <학지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9 (2010.3.) 참조.



(人々海南島北西山中) (Hainan Island, Northwest Mountain)



種人 (Race)

(그림-11) 잡지 『청춘』에 실린 ‘야만인’의 사진 및 그림들

금수와 같이 미개한 야만인으로 호주의 토인(濠太利亞土人)을 들면서 그들의 지리적 환경, 외모, 풍속, 습관, 지적수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시기 잡지들은 다양한 글과 사진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인종주의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문명화의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 차별론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진리인 듯 받아들여졌다.

조선인들이 해외를 방문했다가 접하게 된 서양인들의 모습 역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유학생활동을 하여 문학, 신학, 철학 등을 전공했고 돌아와 교육과 선교사업을 하고 1931년에는 『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했던 지식인 노정일(盧正一)³⁵⁾이

35)서경석 · 김진량 편,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서울: 태학사, 2005), p.58.

1914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 뉴욕 콜럼비아 대학 등을 다니면서 보낸 유학시절의 기록³⁶⁾을 보면, 그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미인’이라 칭하며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품는다. “자유동상 미인께 키스를 드릴 때 나의 심장에서는 감정이 뛰고 나의 두뇌에서는 이성이 깨었다.(...)자유의 여신으로 정치와 종교 정신의 상징을 삼은 미국의 위대함을 존경하는 것보다 그 정신의 상징인 자유의 미인을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는 감정이 뛰었다. 내 가슴에 애정이 뛰게 하고 나의 뇌수에 이성을 깨우게 한 미인의 역사는 어떠한가?”³⁷⁾라며 열광한다.

물론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동경은 그의 미국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한한 동경은 미주(米洲)라는 이름 속에 묻혔고 자유중 울던 저 대륙은 내가 여러해 전부터 상상하고 바라던 공화(共和)의 신미국(新米國)땅이라.(...) 숙망(宿望)하던 산빛, 물색을 보려 하며 인문 물화(物化)에 접하려 하는 나의 가슴의 샘솟는 기쁨(喜湧)이야 참말 작약(雀躍)에 유사하였다”³⁸⁾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도 근 10년이나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만 해도 네 군데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런 그인 만큼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내포하는 정신적 의미와 함께 그 동상의 여성이 ‘미인’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 등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던 박승철(朴勝喆)도 독일로 가는 배 안에서 서양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의 경기는 대단히 민첩하며, 무리의 사람이 둘러서 보는(衆人環視) 가운데 수영복 입은 여자들의 수영 경기는 일반 군중의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동양인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놀랬나이다”라며 서양 여성들의 수영복을 입은 몸과 그 몸의 움직임에 감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광수도 수필 「거울에 마주 앉아」(『청춘』 제7호, 1917.5.)에서 백인들의 외양을 닮고 싶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무엇이, 어디가 달라?」 하였다. 「양인(洋人)의 누런 머리털과 무엇이

36) 노정일, 「세계일주-산 넘고 물건너」, 『개벽』, 제19~26호 (1922.1~8.).

37) 일우(노정일), 「自由의 美人, 建國의 聖人: 世界一週 ‘山 넘고 물 건너’의 其 八口, 『개벽』 제26호 (1922.8.).

38) 노정일, 「세계일주-산 넘고 물건너(2)」, 『개벽』 제20호 (1922.2.).

달라? 어찌해 양인의 머리 터럭에서는 기름이 도는데 내 것은 이렇게 거칠거칠 해? 양인의 가른 머리는 깨끗하고 향내 나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데 내 것은 왜 이 모양이야==왜 이렇게 껌진껌진 하고 퀴퀴하고 부스스해?」... 「그래, 꼭 그렇단 말이야」 하고 나는 다시 「아무리 별 짓을 다 하여서 머리를 단장하여도 양인의 것만큼 멋이 못 들어--당초에 자리가 아니 잡히는 걸.....머리 뼈 속에 무슨 발광체가 있어서 그것이 모공을 통하여 전기모양으로 털끝마다 육안으로 아니 보이는 광선을 사출(射出)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서 자연 머리에 광채를 내는 것이다」 하고 두 주먹으로 머리를 통통 두드려 보았다.³⁹⁾

이광수는 위 글에서 서양인의 모발을 동경하며 자신이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들처럼 멋져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서양인들의 ‘머리 뼈 속에 무슨 발광체가 있어서 그것이 모공을 통해 전기 모양으로 털끝마다 육안으로 아니 보이는 광선을 사출하는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상상까지 곁들여가며 그들의 모발에 대한 환상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서양인의 몸에 대한 조선인의 열등감에 다름 아니다. 왜 서양인의 머리털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 서양인의 것이기 때문에 멋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와 같은 열등 인종은 흉내 낼 수도 없는 비밀(발광체와 같은)이 숨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김동인 역시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성이 금발의 ‘메리’라는 영국계 혼혈 소녀였다는 점을 자신의 자전적 소설 「여인」에서 밝히고 있다. “소년의 물과 같이 맑은 마음에 메리라는 블론드(blond)의 아름다운 콧마가 찍히기 비롯할 때부터”⁴⁰⁾ 그의 마음속엔 백인 여성의 외양이 곧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 그 때문에 서른 살의 김동인이 「여인」을 통해 자신의 30 평생까지의 여성 편력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여성은 금발의 메리와, 그녀를 닮아 사랑에 빠졌던 일본 여성 세미마루였음을 고백하고 있다.⁴¹⁾

39) 이광수, 「거울에 마조안자」, 『청춘』 제7호(1917.5.).

40) 김동인, 「여인」, 『별건곤』(1930.1.).

41) 이영아, 「김동인의 참사랑론과 소설적 형상화 양상 고찰」, 『문학사와 비평학회 편, 『김동인 문학의 재조명』(서울: 새미, 2000).

한편 여성 중에는 소설가 백신애가 중국의 청도를 여행하면서 변화가인 산동로(山東路)에서 서양 여성들과 중국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열등감을 느꼈음을 토로하였다. 그녀는 「청도기행」(『여성』 1939.5)에서 “양녀(洋女)의 곧은 자태를 혼을 잃고 그저 바라볼 뿐이다. 두 눈이 혼돈스러웠다. 양녀는 물론이요 지나 여인까지 머리를 파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의복의 찬란함과 체격의 훌륭함이며 지나 여인의 곡선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의복미가 모두 시골뜨기 나에게서는 구경거리였다. 인력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다. 길가 쇼윈도에 비치는 내 모양이 나 스스로 부끄러운 듯하여 화장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⁴²⁾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확산되었던 서양인에 대한 동경은 일차적으로 사회진화론적 사유와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에 의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1900년대 이래로 우리가 백인종처럼 우등한 인종이 되어야만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다.

조선에서의 인종주의는 사회진화론,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우생학과 연계되어 있었다.⁴³⁾ 그래서 조선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우승열패’의 문제뿐 아니라 ‘인위 도태설’의 성격을 띤다.⁴⁴⁾ ‘인위도태설’이란 갈톤(Francis Galton, 1822-1911)이 창안한 이론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내세운 ‘자연도태설’과 대비되는 학설이다. 다윈과 사촌지간이기도 한 갈톤은 인간혈통은 가축이 개량되는 것처럼 인위적인 선택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갈톤은 우생학을 창시, 발전시켰고, 이러한 인위적 선택에 의해 개량된 인종은 진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인위도태설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직 열등한 우리 사회와 인종의 진보, 개선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갈톤을 직접

42) 백신애, 「청도기행」, 『여성』 (1939.5.): 서경석·우미영 편, 『신여성 길 위에 서다』 (서울: 호미, 2007), p.222.

43)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1996), p.115.

44) 박성진, 「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형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집 (1996), p.89.

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들을 한국사회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이 근대 초기에 수용한 사회진화론은 인위도태의 입장, 우생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⁴⁵⁾ 이것은 ‘인간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인종의 유전적 변질의 위험을 제거하고 유전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선택하고 유전인자의 자연도태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⁴⁶⁾

그러나 랜도어의 사례에서 조선인의 백인 동경 의식의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즉 백인종의 외모가 상류계층 조선인의 외모에 가깝다는 것,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든 상류계층일수록 백인종의 외모와 가까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백인의 외모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백인종에 가까운 몸체에 대한 동경은 단순히 개항 이후에서야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계급 상승 욕망에 의해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상류계급이 지닌 외모의 표지들을 ‘미’, ‘선’의 기준으로 삼고 모방하고 지향해 왔던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1890년 조선을 방문했던 영국인 화가 새비지 랜도어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중심으로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는 선교 및 외교 등의 이해관계 없이, 화가로서의 관찰력과 섬세함을 가지고, 그리고 조선인들과 호의로 직접 부딪혀가며 조선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랜도어는 조선인이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즉 백인종의 외모를 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점 때문에 랜도어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조선에 대해 좀 더 친숙함을 느꼈고, 조선인이 동양 3국 중 가장 뛰어난 몸을 가진 인종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조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조선의 왕족, 귀족들에게만 국한된 생각이었다. 반면 하층민들은 몽골족, 심지어 흑인종에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45)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서울: 선인문화사, 2003), pp.62~63.

46)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1996), p.41.

그의 이와 같은 서술과 그림은 비슷한 시기 조선을 방문했던 다른 서양인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조선인의 다인종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지볼트, 오페르트, 로제티, 프랑탱 등도 랜도어와 비슷하게 조선인이 백인종과 몽골족의 혼합 인종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조선인의 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러 서양인들의 서술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던 서양인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 있는 균열, 근소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랜도어는 계층별로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서양인들과 구별된다. 그의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는 그에게 잠재해 있는 백인우월주의적 사고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백인종에 가까운 외모에 대한 동경을 오리엔탈리즘만이 아니라 계급 상승 욕망 때문으로 해석할 또 다른 여지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Abstract>

A study of Western's viewpoint on the body of Korean

Lee, Young-Ah

This paper examined how the Western visitors saw the body of the Korean, focused on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ritten by Arnold H. Savage Landor. He was a British painter and traveler. He visited Korea in 1890. His visiting did not have any other intention than travel and paint. That is, he had no specific reason for his trip such as a mission work or an economic invasion. Therefore his description of Korean was distinctive from other Western visitors to Korea.

Arnold H. Savage Landor was called “disguised Korean” for he was always mistaken for one, notwithstanding that he dressed in European clothes. He said, “As for several months I was seen day after day sketching in the streets, the people got to know me well, and since the Coreans themselves are very fond of art, (...) I made numerous friends among them, and even, I might say, become popular.” So, he had a sense of closeness, and he seemed to like Korean.

It is more interesting that he said that some Korean people resembled white people. But he said that the coolie classes looked like Africans, while the feature of higher classes people closely approached Aryan. This thought is interesting in terms of two points. The One is the racial feature of Korean was different from other Asian such as Chinese or Japanese and close to European people. This note is found in many other Western visitors at that time. The other is, however, Landor's viewpoint was based on classism. He jumped to a conclusion that the body of higher classes was superior to that of the lower classes and he assumed that the European(white) body was superior to Asian(yellow) or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African(black) body.

coolya112@naver.com

주제어: 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인의 몸, 인종, 계급

Keywords: Arnold H. Savage Lando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Korean body, race, class

■ 논문 ■

Racial Formation in South Korea : Some Thoughts on Future Research

Wol-san Liem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Kyujanggak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Seoul University)

I. Introduction

In the spring of 2006, I arrived in South Korea with some vague ideas about learning Korean, learning about Korean social movements, and conducting dissertation research. That was when I first meet members of the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Trade Union (MTU). A trade union formed specifically for migrant workers of all nationalities in South Korea, MTU had been founded b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pervious April in the wake of a year-long sit-in [nongseong] protest oppo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¹⁾ and the concurrent crackdown being carried out against those without valid visas.

1)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troduced in August 2004, is currently the primary system regulating documente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It has been criticized by MTU and other migrant rights organizations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restrictions placed on the right to change employers, the short period of residence allowed to migrant workers, and prohibitions against bringing family members to South Korea. For ILO concerns over the EPS see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presented at the 9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Switzerland, 2008), pp.385-387;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presented at the 98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Switzerland, 2009), pp.106-107, pp.115.

When I first found my way to the MTU office the president, Anwar Hossain, was locked in Cheongju Foreigners Detention Center, the victim of a late night ambush by immigration officers, and the union was struggling against government repression for its very survival.

To me, coming from a country with a deep history of racism and anti-racist struggles, and particularly from a people-of-color movement community in New York City where critique of structural racism is a central basis for political action, the policies of violent arrest and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and repression against migrant worker organizing appeared just that—structural racism. Thus, it was somewhat surprising to me that neither these measures nor the rest of the restrictive and exploitative conditions under which migrants are placed were understood or discussed as such. This lack of a racial analysis characterizes the wider migrant rights movement, as well as MTU.²⁾

Among the migrant support centers, which have generally been the dominant voice in the migrant rights movement, the general discourse is, at its worst, one that depicts migrants as unfortunate victims who need sympathy and help, an image often perpetuated in the mainstream media. At best, it is a discourse of human rights, which uses standards enshrined in UN conventions as a basis for measuring state policy and the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n society. MTU has worked hard to add a concept of labor rights to this discussion, stressing through words (political discourse) and action (union organizing and direct action) that migrants working in Korea are philosophically and legally workers—the subjects of the same rights to fair wages, decent working

2) I use ‘migrant rights movement’ to refer generally to the migrant support centers, NGOs, unions and social justice organizations that have made efforts during the past decade to improve the conditions under which migrants live and work in South Korea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include service provision, organizing, legal and policy work, and direct action.

conditions,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action as their native-born colleagues.

Within MTU, individual union members speak frequently of the ‘racist’ treatment they receive by employers and Korean co-workers. The last two MTU presidents also began inserting references to government policy as ‘racist’ in public addresses. These choices of words are not a coincidence. They speak to the deeply painful experience of being treated as almost innately inferior at every level of society from the everyday to the representational to the political/legal. And yet, there has not been serious discussion within MTU or among labor and migrant rights forces of ‘racism’ as a structure of oppression and, therefore, the target of political action. This began to change last summer after an incident that led to South Korea’s first conviction of an individual for racist harassment.³⁾ On 10 July 2009, Banajit Hussain, an Indian Professor serving as a researcher at Sungkonghoe University and a female Korean companion were verbally harassed by a Korean man while riding a bus headed for Bucheon. The man, who wa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repeatedly called Hussain ‘dirty’ and ‘smelly’, and also made derogatory remarks towards his friend for ‘being with an Arab’.⁴⁾ When Hussain and his friend took the perpetrator to a nearby police station, they were advised to forgive him and not press charges. Police officers who met with them spoke in *jondaetmal* to the two Koreans, but in *banmal* to Hussain.

3) Because South Korea has no discrimination or hate crimes law, the individual in question was convicted for defamation. See Jeong Mira, “Oegugin injongchabyeor bareon e cheos ‘moyokjae’ injeong [First Recognition of Racially Discriminatory Remark against Foreigner as ‘Defamation’],” *News Way*, 27 November 2009,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1121>.

4) For full account of the incident see, Ahn Su-chan, “Naemsaenaneun hangug ui injong chabyeol [South Korea’s Foul Smelling Racial Discrimination],” *Hangyeore* 21 Vol. 773 (August 200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561.html.

Contrary to the police officers' advice, Hussain and his companion filed charges against the man, who was eventually convicted of contempt and fined 1 million won.⁵⁾ The two also filed a complai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July 14, 2010, the Commission released a statement recognizing that the officers involved in the case had acted based on "racial and cultural bias" and recommending that the police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nd conduct human rights training" to prevent future similar incidents from occurring.⁶⁾

Soon after the incident on the bus occurred, migrant and human rights-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Asijjiyeok daeangyoryuhoe [ARENA], of which both Hussain and his companion happened to be members, MTU, and several migrant support centers formed a "Joint Action Committee against Racial/Gender Discrimination" [Seong • injongchabyeor daechaeg wiwonhoe] to support Hussain's case and to begin a wider discussion about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⁷⁾ The committee was later renamed "Collective Action against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Seong • injongchabyeor gongdong haengdong]. The formation of the committee represents recognition that Hussain's experience was not an isolated one, but rather part of a much deeper social problem. Moreover, it indicates a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migrants rights movement to approach racism as a serious analytical,

5) Jeong Mira, "Oegugin injongchabyeor bareon."

6) Kang Gyeongseok, "Injeongchabyeor josa gyeongchar i injongchabyeor eonhaeng [Racial Discrimination Investigation: Police adopted Racially Discriminatory Demeanor]," *Donga Ilbo*, 15 July 2010, <http://news.donga.com/3/all/20100715/29896020/1>.

7) *Yonhap News*, "Seong • injongchabyeor daechaeg wiwonhoe baljok," *Yonhap News*, 27 July 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784316>". The committee was prompted included confronting 'gender discrimination' in its goals because of the gendered nature of the slurs directed towards Hussain's female companion. This part of the committee's work falls outside the parameters of this paper.

social, and political problem. Thus, it was an important step.

Yet, it is my assessment that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 forces in South Korea, and the society at large, have yet to develop an adequate understanding of what racism is and how it works. Within MTU we noted that thousands of migrant workers were suffering the same type of verbal abuse, and much worse, at their places of work, while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while otherwise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and yet these incidents had neither been prosecuted nor sparked an organized response within the movement. It seemed ironic that it had taken an act of racialized harassment against someone who, because of class and status privilege and social connections, was in a relatively better position to advocate for himself, to draw attention from activists. Moreover, the committee began its work with an understanding of racism that framed it in terms of individual prejudice and acts of discrimination.⁸⁾ As MTU's current president noted in one conference held by the committee, discriminatory treatment is worked into the very legal system that governs migrant workers' existence in South Korea.⁹⁾ These observations point to the need for a critique of racism that goes beyond seeing it as a matter of individual prejudice to instead artic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consciousness/racist ideology, state policy, an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s

8) A statement released at the Committee's opening press conference, for instance, refers to racism (injongjuui) as "one of the most anti-human rights and phobic of discriminatory ideologies" and generally speaks to the problem of individual racially discriminatory "acts and attacks," similar to that experienced by Hussain. "(Gajing) Seong• injongcha-beor daechaegwi gijahoegyeonmun [Press Conference Statement of the Joint Committee against Racial/Gender Discrimination (tentative name)], 27 July 2009, http://withmigrants.org/xe/data_04/64241.

9) Michel, Migrants Trade Union, "A Brief Overview of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presented at the Hanguk saeje seong• in-jeong chabeolmunje toronhoe [Conference on the Problem of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Seoul, South Korea, 26 August 2009), http://migrant.nodong.net/bbs/data/pds_docu/0826proceedings.pdf.

the components of a structure of oppression. I propose development of this understanding as a task both for scholars and social movement actors.

In what follows I make some initial suggestions for how this work might be done. To do so I draw on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s concept of 'racial formation', which was originally formulated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changing meaning of race in the United States. Clearly, race has played a different role in South Korea than it has in the U.S. While Koreans have historical experiences with race and racism (most notably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and in relation to U.S. military intervention) that have had lasting influence, these encounters have not embedded race in social consciousness and racism in social structure to the same extent that 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and racial slavery have done in the U.S. South Korea's experience with a 'racially different' group that primarily plays the role of cheap labor in the South Korean economy is much more recent than the United States' reliance on first, slave labor and then, the cheap labor of immigrants and other people of color. On the other hand, as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ildren increasingly become part of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society,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race and racism in Korea becomes more important.

Omi and Winant's theory is by no means sufficient to understand all dimensions of South Korean (or even American) racism. Nonetheless, I believe it is useful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ollowing reasons: 1) racial formation theory recognizes the changing and socially constructed nature of racial categories and racist systems. Thus, it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zing race and racism as they develop in Korean society. 2) Racial formation theory also provid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looking at incidents that occur at various levels of society (interpersonal, representational, legal-political) that together create racial categories and racism as

a structure of oppression.

II. Basic Concepts

In this section I provide an overview of the concepts that form the building blocks of racial formation theory, drawing as well from my experiences as a person of color and anti-racist activist in the U.S. This discussion provides the background necessary for the following section, in which I suggest how racial formation theory might be used to study of race and racism in South Korea.

1. race

Omi and Winant offer the following definition of race: “[A] concept which signifies and symbolizes social conflicts and interests by referring to different types of human bodies.”¹⁰⁾ This definition begins from an understanding of race as socially constructed. To say that race is ‘socially constructed’ is to recognize that while racial designations make reference to essential qualities or physical characteristics, there is in fact no biological basis for different racial groupings.¹¹⁾ Because of this, racial categories have varied significantly over time and locality.

To call race ‘social constructed’, however, does not mean that it is a mere illusion. Rather, Omi and Winant’s definition pays close attention to the real influence race has on society and politics and the central role it plays in shaping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the U.S.¹²⁾ To understand how this happens, it is helpful to understand race as an element of common sense¹³⁾ or ideology that shapes

10)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2nd E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4), p.55.

11) Omi and Winant, p.4.

12) Omi and Winant, p.vii.

13) I follow Omi and Winant in using a Gramscian definition of common

and is shaped through social practices.¹⁴⁾ As common sense embedded in social practices ranging from everyday interactions to the formation of state policy, race becomes an “element of social structure” with deep meaning, but also not impervious to change.¹⁵⁾

2. racial formation

Omi and Winant use the concept of ‘racial formation’ to describe the “the socialhistorical process by which racial categories are created, inhabited, transformed, and destroyed.”¹⁶⁾ This process they explicitly tie to the evolution of hegemony—“the way in which society is organized and ruled.”¹⁷⁾ To objectify and study the process of racial formation, they conceptualize it as a series of “historically situated projects” defined as “simultaneously [] interpretation[s], representation[s], or explanation[s] of racial dynamics, and [] effort[s] to reorganize and redistribute resources along particularly racial lines.”¹⁸⁾ Interacting with one another, these racial projects define what race and particular racial categories mean. Racial formation takes place on a macro/institutional level through law and policy, on a micro/everyday level through interpersonal

sense, which has been further developed by latter scholars, most especially Ramon Williams. See,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Quentin Hoare and Geoffrey Nowell Smith, ed. and tran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Raymond William,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14) I am here using drawing from Althusser’s theory of ideology and ‘interpellation’, which posits that “individuals are interpellated as [ideological] subjects” through “material ritual practice[s] of ideological recognition.”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Notes Towards and Investigatio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trans. Ben Brewster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1), p.117. I believe this theory is also consistent with Omi and Winant’s discussion.

15) Omi and Winant, p.55.

16) Omi and Winant, p.55.

17) Omi and Winant, p.56. This is a summary of the Gramscian conception of hegemony. See above, ft. p.13.

18) Omi and Winant, p.56.

interactions and individual acts of discrimination, and everywhere in between.

Examples of racial projects in U.S. history include the Jim Crow laws that mandated de jure racial segregation in public facilities until the mid-1960s. The arrest last year of a black Harvard Professor on his own porch by a white police officer, President Obama's criticism of the policeman's conduct, and then his statement of regret for having exacerbating public outcry, can also be seen as racial projects. In South Korea, the Korean bus rider's slander of Prof. Hussain as dirty and smelly functions as a racial project by associating negative traits with a South Asian phenotype. The police officers' belittling of Hussain when he requested assistance and their suggestion that he not file a complaint, as implicit acceptance of the perpetrator's attitude, are also racial projects. I will return to other examples of racial projects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e next section.

3. racism

Racism, then, is more than simple racial prejudice or individual acts of discrimination. Rather, it is a system of domination/oppression defined in terms of racial categories, which is developed, maintained and altered through the process of racial formation. Omi and Winant are careful to point out that race and racism are not identical and, therefore, that not all racial projects are racist ones.¹⁹⁾ To illustrate this point they look at the example of a program involving academic scholarships awarded to Native American students. As an efforts to distribute resources based on a racialize category (Native Americans), such a program may be seen as a racial project.²⁰⁾ Yet, because it is an effort to redress a history of racist policy, and

19) Omi and Winant, p.71.

20) Omi and Winant, p.72. Omi and Winant use the term 'racist racial project'. For the sake of simplicity I will refer to racial projects that are racist as 'racist projects'.

not an attempt to support the domination of one group by another, it cannot be said to be racist. On the other hand, the exclusion of people of color from well-resourced schools during Jim Crow can be seen as a racist (racial) project.

Omi and Winant define racist projects as those which, “creates or reproduce[] structures of domination based on essentialist categories of race.”²¹⁾ Different racist projects do this in more or less obvious ways. For instance, while representations of Asian Americans as “naturally entrepreneurial” are clearly essentializing, it is not immediately obvious how they contribute to reproducing a structure of domination until they are viewed in the context of Asian immigration to the U.S., exclusionary state and federal laws, the refusal of American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recognize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chieved in non-Western countries, the exploitative conditions in immigrant-owned small shops, and the role these shops play in the U.S. economy. Close examination of this history, however, shows that such a statement, far from being benign, serves to justify the difficult conditions under which many Asian immigrants are forced to work as suitable to their ‘nature’. Similarly, while exclusionist immigration policies are these days rarely based on explicitly racial categories (the right to natural-

21) Omi and Winant, p.71. Etienne Balibar gives the following complementary characterization of racism: “Racism – a true ‘total social phenomenon’ – inscribes itself in practices (forms of violence, contempt, intolerance, humiliation and exploitation), in discourses and representations which are so many intellectual elaborations of the phantasm of prophylaxis or segregation (the need to purify the social body, to preserve ‘one’s own’ or ‘our’ identity from all forms of mixing, interbreeding or invasion) and which are articulated around stigmata of otherness (name, skin colour, religious practices... It is the combination of practices, discourse and representation in a network of affective stereotypes which enable us to give an account of the formation of a racist community... and also of the way in which, as a mirror image, individuals and collectivities that are prey to racism... find themselves constrained to see themselves as a community.” Etienne Balibar, “Is There a ‘Neo-Racism’,” 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London and New York: Verso, 1988), pp.17-18.

ization in South Korea, for instance, is formally based on length of period of residence, amount of assets, and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²²⁾) their effect may be to reproduce a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racialized groups. More on this will be said below. I will here simply note that I take Omi and Winant's definition of racism as a structure of domination based on essentialist racial categories to be referring to the outco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many racist projects, rather than the stated intention of each individual one.

I accept Omi and Winant's distinction between race and racism to a degree. I would note, however, tha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as been intimately bound together with a history of colonization, domination, and exploitation. Thus, I would argue that while race and racism are not identical, a discussion racial formation cannot take place without acknowledgment of its close connection to the development of structural racism. In addition, racism cannot be discussed without acknowledging its intersection with other forms of oppression. Most specifically, racism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On a basic level, this interaction expresses itself in the employment of workers that are racialized as different and inferior as cheap labor and the conduciveness of racial antagonism to the capitalist strategy of divide and rule. Because racism also expresses itself strongly in the realm of representation (by which I mean both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media, educational materials, etc.), however, the interaction is far more complex with racism contributing to the reproduction of structures of domination in a capitalist society far beyond the workplace. Moreover, racial divisions are not identical to class divisions. Thus, it is a mistake to reduced racism to capitalist class exploitation.

22)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Article 5, last amended by act no. 8892, 14 March 2009.

A few more things need to be said about present-day racism, both of which are pertinent to a discussion of racial formation in South Korea. First, the factors influencing racial formation and racism in a given society lie far beyond national borders. Nadia Kim has looked at the role of U.S. imperialism in shaping Korean immigrants “transnational understandings of ‘race’” and therefore in influencing racial dynamics during the 4.29 uprising in Los Angeles in 1992.²³⁾ More generally, uneven capitalist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the disproportionate impact of war and neoliberal policies on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which themselves have racist origins) have strong influence on migration patterns and the class character of racialized groups that end up in host countries.²⁴⁾ This means that inequality in wealth and access to resources are structured even before migrants from South Asian countries enter South Korea. A full investigation of South Korean racial formation and racism will have to account for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racial projects, as well as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lass and race dynamics.

Secondly, in the post-colonial, post-civil rights world, racism and specific racist projects often do not make reference to overtly biological categories. Etienne Balibar has used the terms “racism without races” and “cultural racism” to refer to this tendency, which he sees reflected in anti-immigrant sentiment and practices in France. The discourse of cultural racism, he notes, acknowledges that “that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their ‘aptitudes’ cannot be explained in terms of their blood or even their genes, but are the

23)Nadia Y. Kim, *Imperial Citizens: Koreans and Race from Seoul to L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24)The following essay serves as a good starting point to begin this theorization: Immanuel Wallerstein, “The Construction of Peoplehood: Racism, Nationalism, Ethnicity,” 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tsein (London and New York: Verso, 1988), pp.71-85. See especially, pp.79-80.

result of their belonging to historical ‘cultures’.”²⁵⁾ While cultural racism acknowledge that diversity is a fact of the world, it assumes conflict between cultural different groups to be a given and, in so doing, naturalizing racial conduct.²⁶⁾

In South Korean references to biological race are rare in government policy. Instead, the government, followed by the mainstream media, uses a dual discourse of illegality and multiculturalism when referring to migrants from non-western countries, which might be seen as a form of ‘cultural racism’ or ‘racism without races’. The discourse of criminality is discussed in greater detail below.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portrays South Korea as a nation where foreigners are treated with respect and receive the assistance they need to adjust to society. The bulk of state multicultural programs are aimed at aiding the social/familial integration of foreign wives of Korean men and their children. More research is needed in this area. I would argue, however, that while multicultural policy and discourse, may not refer to biological difference, they do contribute to the reproduction of migrants (particularly migrant women) as objects of Korean pity and enlightenment, thus reinforcing their ‘cultural’ difference. At the same time, the emphasis on multiculturalism conceals deeper problems of structural racism and class exploitation as they express themselves in the workplace and other areas of society. At the same time, Prof. Hussain’s experience shows that racial projects based on phenotype continue to occur on the level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and can be reinforced by state power. In a study of racial formation in South Korea attention must be given to the way in which forms of racism that avoid explicitly biological racial categories interact with those that involve essentialization based on references to genetic or biological difference.

25) Balibar, p.21.

26) Balibar, p.22.

III. South Korean Racial Projects

In this section, I use the theoretical framework outline above to suggest some of the ways racial formation and, particularly,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racial oppression are taking place in South Korea. The picture presented below is by no means complete. Rather I schematically examine a few racist projects in order to demonstrate how research on racial formation and racism in South Korea might be carried out.

1. crackdowns and racist domination

Since November 2003, when South Korea began preparing to implemen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South Korean Immigration Service has carried out widespread and systematic crackdown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in the country. These crackdowns begin with raSids on factories and homes in which migrants are summarily rounded up and arrested. Undocumented migrants have also been searched out in restaurants and other popular gathering places, and through checkpoints at bus and subway stations. Those arrested are brought to detention centers where they are locked up for anywhere from a few days to several weeks or months while preparations are made for their deportation.

Since even before such crackdowns were carried out on a broad scale, immigration authorities have been seeking out migrant worker activists for arrest and detention in a tactic that has become known in the migrants rights movement as 'targeted crackdown' (pyojeokdansok). Immigration officers first employed the tactic in 2002, when two officers of the Equality Trade Union Migrants Branch (ETUMB), MTU's predecessor, were arrest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leading a 77-day sit-in protest. They have continued to use it up to the present with three successive leaderships of MTU and several migrant activists working in other organizations

falling victim.²⁷⁾ While it has been the habit of immigration authorities to claim that arrested migrant activists were caught during routine raids, the planned nature of these attacks is obvious and clues suggest that they are ordered from far above the Immigration Service. ²⁸⁾As such, acts of targeted crackdown have been widely condemn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labor community. Last year,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ssued two reports recommend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frain from taking measures which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such as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for reasons related to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²⁹⁾

Both the general crackdow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and targeted crackdown against migrant activists can be seen as racist projects, which contribute to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a system of domination structured by racial categorie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officially, immigration crackdowns target indi-

27)The most recent case involved the arrest of well-known Nepalese cultural activist and migrant worker Minod Moktan (Minu) in front of the office of Migrant Worker TV, where he worked, on 8 October 2009. Minu was deported shortly thereafter on 25 October 2009, despite widespread protest withi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ly. See, “MWTV seongmyeongseo – urineun ajig minuga piryohada. Minu ege jayureul! [MWTV Statement: We still need Minu. Freedom for Minu!,” 12 October 2009, <http://www.mwtv.kr/>.

28)For example, a report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Gukgagyeongjaengryeok ganghwa wiwonhoe) in September 2008 explicitly references past arrests of MTU leaders as a means of stopping union activities and calls for similar measures to be taken in the future. See below, page 13. The Committee o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was a body initiated and chair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ian experts.

29)“355th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present to the 306th Session of the ILO Governing Body, November 2009, para. 710(c). See also “353th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Association,” (presented at the 304th Session of the ILO Governing Body, Geneva, Switzerland, March 2009), para. 795(b).

viduals based, not on racial categories, but on visa status. Articles 46 through 50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give immigration officials the right to investigate any individual ‘suspected’ of being in violation of the law, including the right to demanding presentation of documentation of residence status.³⁰⁾ These provisions open the way towards racial profiling, and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documented Asian migrants being stopped on the street or mistakenly picked up in raids. On a structural level, crackdowns function to expand and solidifying the inequalities in privilege and power between non-white migrants and native Koreans by creating an atmosphere of terror that keeps migrants from carrying out everyday activities, not to mention deters them from complaining about workplace conditions and collective organizing. This is true not only for undocumented migrants, but for all those who work under similar conditions, as they are in constant danger of becoming undocumented due to the temporary and precarious nature of their visas, and because they may be picked up even while they have valid residence status.³¹⁾ Similarly, while South Korea’s Nationality Act does not technically bar people from South Asian and other non-western countries from citizenship, the assets requirement does so for most migrant workers, as does the restriction on period of residence for those with E-9 (EPS) visas, which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them to be legally in the country for the five-year period required for naturalization.

Targeted crackdown against migrant activists, as well, reproduces inequalities between native Koreans as migrants. It does this by wiping out the leadership of migrant organizations, and thus dimin-

30)See, South Korean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s 46-50, last amended by act no. 9142, 19 December 2008.

31)Restrictions on the reasons for which and number of times one can change workplaces and the short five-year residence period stipulated by the EPS mean that EPS workers can easily become undocumented by leaving a workplaces without getting the proper permission or after all changes to change workplaces are used up, or by staying in Korea after the five-year residence period is over.

ishing migrants' capacity for collective action, the primary means through which oppressed groups (workers, racialized minorities, etc.) can offset material inequality and lack of representation. By eroding this equalizing force, targeted crackdown serves to keep migrant workers in their place in the racial and class hierarchy.

2. criminalization and racist essentializing

I have already discussed the essentializing involved in racist acts such as the harassment Prof. Hussain experienced last summer. I have also suggested that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may have a similar effect of naturalizing difference (and therefore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people from other Asian countries. This possibility is easily seen in the racial project of referring to the children of unions between Korean and South Asian marriage migrants as "KorAsian" (kosian), a label that is often accompanied by the very clear explanation "a mixed blood child born of a Korean and someone from an Asian country."³²⁾ While the term 'KorAsian' may be used to call attention to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specific needs of these children, it also helps to concertize perceptions of them as 'different', not because of the national, linguist, or culture background of one parent, but because of his or her "Asianness". That the concept of 'Koraasian' is social construct becomes readily apparen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in the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Korean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Asian'. Nonetheless, the label 'KorAsian' has real significance in the lives of the children to whom it refers.

An even more dangerous form of essentializing is the increasing association of (Asian) migrants with crime and criminality in policy

32) See for example, Kang Beoduel, "Jobumodo oemyeon... bangchidoe-neun kosiandeul [Grandparents also turn away... Neglected KorAsians," *Munhwa Ilbo*, 19 January 20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11901030827258002>.

discourse and the mainstream media.³³⁾ This has happened in the last few years through the increased attention to ‘foreign crime’ by government agencies, which has been picked up by the mainstream media, and which has com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evidence, whatsoever, that foreigners are more responsible for crime than Koreans.³⁴⁾ Actions taken against foreign crime, and the statements associated with them, often implicitly or explicitly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undocumented residence (an administrative offense) and criminal behavior. They also suggest a general correlation between foreignness and potential criminality. In this case, ‘foreignness’ is closely associated with Asian-ness, as western Europeans and American criminals are not the primary targets in such initiatives.

A report entitled ‘Plan for Improving Policy on the Unspecialized Foreign Labor Force,’ released by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Gukgagyeongjaengryeok ganghwa wiwonhoe) on 25 September 2008 provides an early example of this trend. This document lists the “increase of areas of illegal foreign resident concentration” and “the occurrence of all forms of crime” on the same line, under the section title “problems [of illegal migration]: crime and damage to national image.”³⁵⁾ It

33) See for example, Lee Se-hyong, “‘Oegugin beomjoe choeda’ - ansandanwon-guro [‘High Levels of Foreigner Crime’ - Ansandanwon-Guro,” *Donga Ilbo*, 27 October 2008,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270146>; Lee Han-seun, “Jo Gwang-deok “oegugin byeomjoe 4nyeongan 59% jeungga, [Jo Gwang-deok - “Foreigner crimes have increased 49% in the last 4 years,” *Yonhap News*, 9 October 2009, http://www.etimes.net/service/CreditBank_2008/shellview.asp?ArticleID=2009100916364802303; Park Si-soo, “Foreigners’ Crimes Rise Significantly,” *The Korea Times*, 3 March 2010,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0/03/117_61796.html.

34) The National Police’s own 2009 white paper records 4.1 crimes for every 100 Koreans and 3.9 for every 100 foreigners.

35) Gukgagyeongjaengryeok ganghwa wiwonhoe [Committee on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ijeonmun oeguginryeog jeongcheag gaeseonbangan [Joint Team for the Investigation of Organized Foreign Crime], 25 September 2008, p.19

also lists as a problem, “the formation of a union by illegal residents [MTU], [leading to] the tendency towards neglect of the law.”³⁶⁾

The year afte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mmittee report was released, a ‘Joint Team for the Investigation of Organized Foreign Crime’, consisting of officers from the Prosecutors’ Office,³⁷⁾ the National Police, the Customs Service and the Immigration Service, was set up within the Prosecutors’ Office. In a statement that comes close to making criminality a characteristic of ‘foreignness’, a press release explaining the team claimed it was formed “out of joint awareness that a cross-government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organized and serious foreigner crime, which threatens public order and is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foreigner crime attendant the increase in foreigners residing in South Korea³⁸⁾ Notably, the release gave only one example—the murder of a young Korean girl by an individual Filipino man in March 2008—as evidence for its assertion of an expansion of organized foreigner crime.

The joint team disbanded after apprehending 1,354 individuals, including 209 accused of using counterfeit immigration documents, over a five-month period.³⁹⁾ A similar initiative was begun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only a few months later, however, under the pretext of “supporting the successful opening of the G20 Summit [scheduled for November 11–12]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ecure public order in Seoul.” This time, ‘illegal residents’ were

36)Gukgagyeongjaengryeok ganghwa wiwonhoe, p.19.

37)Geomchal [Prosecutors’ Office], “Oegugin jojikbeomjoe habdongsusabonbu seolchi [Establishment of Joint Team for the Investigation of Organized Foreign Crime],” press release, 27 October 2009, p.1.

38)Geomchal [Prosecutors’ Office], “Oegugin jojikbeomjoe habdongsusabonbu hwaldong gyeolgwa [Activity Report of the Joint Team for the Investigation of Organized Foreign Crime],” press release, 8 April 2010, p.1; Geomchal, “Oegugin jojikbeomjoe habdongsusabonbu seolchi,” p.1

39)Geomchal, “Oegugin jojikbeomjoe habdongsusabonbu hwaldong gyeolgwa,” p.1

explicitly listed among the ‘criminals’ targeted by stop and search procedures.⁴⁰⁾

The measures describe here both represent and treat Asian and other non-white migrants as, by nature, potential criminals, and undocumented migrants as criminal in fact, a pattern which is then reflected in mainstream media coverage. Associations of migrant workers with criminality legitimize and are reinforced by immigration crackdowns.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a large-scale immigration crackdown followed soon after the Seoul Police initiative.) They als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acist harassment by common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like that which Prof. Hussain experienced. Thus, criminalizing polices should be understood as projects in the process of racial formation that are clearly racist.

IV. Program for Future Research

I will conclude by briefly suggesting possible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The program below does not by any means exhaust the possible work that might be done on South Korean racial formation and racism. It merely represents some initial thoughts about areas of pressing concern.

1.theoretical

As suggested above, greater work needs to be done to the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sm and intersecting structures of oppression. With respect to migrant workers, this means looking at the way in which racism and capitalist exploitation interact and reinforce one another in South Korean society and in relation to the

40)Seouljibang gyeongchalcheong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Oegugin gangryeong beomjoe seonjejeog daeeung eur wihan ‘oegugin miljip jiyeog teukbyeol dansog’ chujin [‘Special Crackdown on Areas of Foreigner Concentration’ to Preemptively Respond to Severe Foreigner Crimes],” press release, 3 May 2010, p.2.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With respect to marriage migrants, it means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 and patriarchy in the process of racial formation. Also as suggested above, racial formation theory needs to be adapted to adequately account for forms of racism that do not make explicit reference to biological racial categories and look at their interaction with those that do. This work will require an examination of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an issue I have only been able to touch on very briefly.

2. empirical

(Racist) racial projects can be researched in multiple sights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In addition to deepening of the investiga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its associated discourse, which I have begun here, representations of various demographic groups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s, the children of Korean and non-Korean spouses, specific nationalities, etc.) in the media and educational texts need to be examined in relation to other racial projects. Specific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olicy and representation concerning Chinese Koreans, a group whom I have not been able to discuss here at all, and whom I would argue is racialized as 'Asian' in some circumstances and 'Korean' in others.

'Everyday' and other non-state racial projects are also important areas of investigation, which might be accessible throug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category should include research on grassroots racist organizations, such as the Bulbeopcheryuja chubang undongbonbu (Headquarters of the Movement to Deport Illegal Residents), which have developed in tandem with the overall atmosphere of criminalization. Any work on these groups should be careful to treat them neither as an aberration nor or as the primary expression of racism, but rather as one part of a large larger system of racial oppression.

Racial projects are enacted by, not only dominant groups, but also socially disadvantaged and oppressed groups who use racialized identities to make claims to redress.⁴¹⁾ Accordingly, study of South Korean racial formation must include investigation of what migrants think about questions of race, racism, and identity. Again, this research might be achiev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Finally, framing the experience and struggle of migrants in Korea in terms of racism rather than (or in addition to) human rights suggests the need for the formulation of new demands, the positing of new alternatives, and a new form of collective action. Development of a concrete agenda for anti-racist organizing and mobilization in South Korea is a task that will require the attention, not only of critically engaged scholars, but also of activists working on the ground.

41) These types of racial projects included Omi and Winant's example of scholarships for Native Americans discussed above, p.7.

■ 논문 ■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

조규태(한성대학교)

1. 머리말

1860년 최제우에 의하여 창시된 東學은 西學의 他者로서 탄생하였다. 즉, 서구 열강이 중국과 일본을 무력으로써 개항시키고, 서학이 堂獄說과 無父無君說 등으로 조선의 질서를 파괴하던 때에, 서양과 서학에 대한 두려움에서 최제우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동학을 창시하였던 것이다. 최제우는 동학의 경전에 ‘東洋’에 대한 타자로서 ‘西洋’, ‘동양인’에 대한 타자로서 ‘서양인’, ‘東道’에 대한 타자로서 ‘洋道’라는 글귀를 실었다. 또 그는 ‘東學’에 대한 타자로서 ‘洋學’이란 용어도 사용하였다.

그런데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때 타자로서 활용되었던 광의의 서양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동양의 대척점으로 서양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사실적이고 중립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하는 서양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는 부러움으로, 서양인은 말이 조리가 없고 글이 분별이 없다고 할 때는 비하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고 천하를 취하였다고 할 때는 비난의 양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제우의 타자에 대한 인식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었다. 또 불변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었다.

동학과 그 후신인 천도교를 믿은 동학도와 천도교인의 타자로서의 서양에 대한 인식도 다면적이고 유동적이었다. 문명화의 대상으로 서구를 바라볼 때, 서양은 찬탄과 회구의 대상이었다. 또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태평양전쟁에서 영·미와 혈전을 전개할 때, 서양은 배척과 비난, 궤멸과 멸종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동학과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

식은 다양하고 유기적인 모습을 띠었다.

지금까지 동학과 천도교의 서학과 서양문명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다룬 연구들은 적지 않았다. 먼저 동학의 탄생 배경을 검토하면서, 동학의 반서학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¹⁾ 그리고 동학의 개화운동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동학의 서구문명에 대한 회구를 검토하였고²⁾, 문화운동기 천도교의 서구의 사상과 문화와 문명에 대한 지향의 측면을 다룬 적도 있었다.³⁾ 아울러 전시체제가 천도교의 서양인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언급한 연구도 있었다.⁴⁾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傳稿로 동학과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통시기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동학과 천도교의 타자로서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나누어 통시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변화를 알아보려 한다. 먼저 동학을 창시할 당시의 최제우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경전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동학과 천도교가 근대화운동을 추진할 당시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경전과 논설, 수필 등을 통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가 만연한 태평양전쟁기 천도교의 서양에 대한 인종주의적 인식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타자로서의 서양 인식과 동학의 성립

동학이 창시된 1860년 무렵 최제우는 西洋을 東洋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서양의 지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는 西洋人和 西學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東洋人和 東學의 他者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1) 신일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동학사상의 이해』(사회비평사, 1995); 김용휘, 「수운 최제우의 아국인식과 동학의 어원적 의미 - 서학과 유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0 (2007).

2) 이은희, 「동학교단의 갑진개화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이현희, 「갑진개화운동의 역사적 전개」, 『동학학보』 4 (2002).

3)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동학·천도교편-』(혜안, 1995).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허수, 『일제하 이돈화의 사회사상과 천도교: '종교적 계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김정인, 『천도교의 근대 민족운동 연구』(한울, 2009).

먼저 그가 서양인을 처음에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논학문>이 참고가 된다.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西洋之人은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무기로 싸우는데 그 앞에 당할 사람이 없으니,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나라도 어찌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근심이 없겠는가? 모든 연유는 다름이 아니다. 이 사람은 道는 西道를 칭하고, 學은 天主를 칭하며, 教는 聖教라 하니 이는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런 것을 일일이 들려면 끝이 없는 고로 나 또한 悚然하여 단지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이었다.⁵⁾

위의 글에 따르면, 최제우는 일반사람들이 “西洋의 사람들은 道를 이루고 德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무기로 싸우면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서양의 사람들은 西道·天主學·聖教를 칭하니 이들은 천시를 알고, 천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제우가 서양인에 대해 처음에 가진 인식은 이들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최제우는 서양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나름대로 이들의 실체를 규명하여 이들을 비판하였다. 최제우는 <논학문>에서 서양인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는 검고 힘의 구별이 없으며, 삼가 천주를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단지 자신을 위하는 술책만을 바랄 뿐이니, 몸에는 氣化의 神異가 없고, 배움에도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⁶⁾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서양인을 “천주의 뜻으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고서 공격하여 천하를 취하여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하였다.”⁷⁾고 하여 신의 없는 사람으로 비판하였다. 요컨대 최제우는, 우리가 시비의 분별이 있고 신의가 있으며 이타적인 데 반하여, 서양인은 그렇지 않으며, 심지어 약탈적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최제우는 서양인들을 ‘西洋賊’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였다.⁸⁾

5)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1-22쪽.

6)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5쪽.

7) <<동경대전>>, <포덕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13쪽.

8) <<용담유사>>, <권학가>,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48쪽.
“요망한 서양적(西洋賊)이 중국을 침범해서 천주당 높이 세워 거소위(學所謂)

다음으로 최제우의 서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된다.

曰 然則何道以名之잇고?

曰 天道야니라.

曰 與洋道無異者乎잇가?

曰 洋學은 如斯而有異하고 如呪而無實이나 然而運則一也요. 道則同也로대 理則非也니라.

曰 何爲其然也잇고?

曰 吾道는 無爲而化矣라. 修其心正其氣하고 率其性修其教하야 化出於自然之中也요. 西人은 言無次第하고 書無皐白 而頓無爲天主之端하고 只祝自爲身之謀하니 身無氣化之神하고 學無天主之教라. 有形無迹이요 如思無呪하니 道近虛無요 學非天主라. 謂無異者乎아.(논학문)

曰 同道言之則名其西學야잇고?

曰 不然하다. 吾亦生於東受於東하니 道雖天道나 學則東學이요. 況地分東西하니 西何謂東이며 東何謂西리오. 孔子는 生於魯 風於鄒하야 鄒魯之風이 傳遺於斯世어늘 吾道는 受於斯 布於斯하니 豈可謂以西名之者乎잇고.(논학문)⁹⁾

위의 글에서, 최제우는 서학은 우리의 학문과 같은 듯하나 다르며 비는 것 같지만 진실함이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학이 運과 道는 우리의 것과 같지만 理致가 다르다고 하였다. 풀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학문이 天道의 이치를 無爲而化로 삼아 사람들이 마음을 닦고 그 기를 바르게 하며 그 본성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닦아서 변화가 자연스런 가운데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그는 서학은 천도의 이치를 虛無로 삼아 사람들이 말에 순서가 없고 글에 시비의 분별이 없으며 삼가 천주를 위하는 실마리가 없고 다만 제 몸을 위하는 방책만을 빌 뿐이니 몸에 기화의 신이 없어서 天主의 가르침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는 서양인과 서학을 동양인과 동학의 他者로서 분명히 인식하

한난도(扞難道)를 천하에 편만하니 가소절창(可笑絕唱) 아닐런가”.

9) <<동경대전>>, <논학문>,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정민사, 1986), 24-26 쪽.

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하에서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제우는 관에 체포된 후 供招에 대한 답변에서 “洋學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敬天之心’으로 열세 자 주문을 지어 東學이라고 했고, 명칭을 東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東國의 이름을 취한 것이며, 그렇게 해서 陰인 洋學을 陽인 東學으로 제압하려 했다.”고 하였다.¹⁰⁾ 이 글을 통하여, 최제우는 西洋을 우리나라인 東國의 타자로, 陰인 서학을 陽인 동학의 타자로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서학적인 입장에서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는 자신을 서학과 분명히 구별지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서학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자, 최제우는 서학에는 名人이 없는데 자기가 서학을 빌어 이름을 내겠냐고 반박하였다.¹¹⁾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무렵에 가졌던 동학의 반서양적인 인식은 동학농민운동 무렵의 동학도들에게도 존속되었다. 1892년 10월 공주최회 무렵 서인주와 서병학 등이 충청감사인 조병식에게 제출한 <各道東學儒生議送單子>에는 “西夷之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왜의 해독은 다시 외진에서 날뛰고 있고, 흥역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¹²⁾고 하여, 동학교인들의 반서양인과 반서학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1893년 1월 10일 경삼례에 모인 전봉준과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이 전라감사에게 보낸 글에도 “왜적과 양적이 나라 한가운데로 들어와 큰 혼란이 극심하다. 실로 오늘날 나라의 수도를 보건대 마침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다. (중략) 우리 수만 명은 힘을 합쳐 죽기를 맹세하고 왜적과 양적을 물리쳐 大報之義를 본받고자 한다.”¹³⁾라고 하여, 반서양적인 인식이 표출되었다. 이후

10) 신일철,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1995), 128쪽.

11) <<용담유사>>, <안심가>, 이세권 편저, 『동경대전』 (정민사, 1986), 158-159쪽. 요약한 그 인물이 할 말이 바이 없어/ 서학이라 이름하고 온 동내(洞內) 외는 말이/ 사망련(詐妄譴) 저 인물이 서학에나 싸잡힐까/ 그 모르는 세상 사람 그것을 말이라고/ 주켜들고 하는 말이 용담에는 명인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서학에는 용터라고/ 종중 걸음 치는 말을 역력히 못할로다./ 거룩한 내집부녀 이글 보고 안심하소/ 소위 서학 하는 사람 압만 봐도 명인(名人) 없대/ 서학이라 이름하고 내뎐 발천(發闡)하렸던가.

12) 배항섭, 「동학의 확산과 반침략·교조신원 운동의 전개」,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141쪽.

13) 배항섭, 앞의 책, 160-161쪽.

1893년 2월의 伏閣上疏와 1893년 3월의 보은취회와 금구취회에서도 이러한 반서양적 인식은 유지되었다.¹⁴⁾

III. 개화·문화운동기 동학·천도교의 문명론적 서양 인식

동학과 동학교인의 반서양적 인식은 1901년 손병희가 일본에 망명한 후,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할 무렵부터 바뀌어졌다. 최시형 사후 동학의 도통을 이은 손병희는 동학농민운동 후 문명개화운동론의 확산, 서북지역 교인들의 문명개화운동 희망, 1901년 일본 망명 후 개화파 인사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문명개화사상을 갖게 되었다.¹⁵⁾ 손병희는 1903년 지은 <三戰論>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데에서 탈피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⁶⁾ 손병희는 같은 해에 집필된 「明理傳」의 <창세원인장>에서는 “옛날의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으나, 서양 사람은 今世의 운수를 타고나 동양사람보다 투철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가 밝아 공화와 입헌의 정치를 세상에 드러내어 동서양이 뒤집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동양에서 그 정치를 변화하여 천명을 공경하고 인심에 순응하여 인재를 길러 찬란한 문물을 다시 세상에 밝히면 옛날의 문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1904년 3월 손병희가 보낸 <의정대신각하전상서>에서 손병희는 “서양지인은 才藝를 必達하여 人造之術이 逐物必備하니 此則可學而引用者也”라고 하였다.¹⁸⁾

이러한 손병희의 생각은 휘하 교인들에게도 공유되었다. 1904년 음력 7~8월 나인협은 광고를 통하여, ‘우리 대한이 한 모퉁이에 궁벽하게 있어, 세계 각국의 문명개화한 풍속을 알지 못하여 세계 각국이 야만국이라 칭하니 팔도인민이 團會하여 개회하여 타국의 문명개화를 본받아 동양

14) 배항섭, 앞의 책, 80-119쪽.

15)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 『동아연구』 21 (1990), 81-91쪽;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호 2001, 186-196쪽.

16)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76 (1994), 102쪽.

17) 천도교중앙총부, 『신사정사법실』 (1986), 425-427쪽;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천도교경전』 (1974), 79-80쪽.

18) 천도교사편찬위원회 편, 『천도교백년략사』 상, 1981, 341쪽.

삼국의 평화를 이루고 아국강토를 방어하라'고 주장하였다.¹⁹⁾ 또 1904년 음력 9월 평양의 進歩會 개최 시 관아에 제출한 글에서, '현재 세계 각국에는 국회와 국교가 있으니, 크게 民會를 열어 안보의 계책을 세우자'고 하였다.²⁰⁾ 요컨대 1903·1904년 동학이 개화운동을 추진하던 무렵부터 손병희를 따르던 동학교인에게 서양은 문명국으로서 모방의 대상과 이루어야 할 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1905년 12월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꾼 후, 천도교단이 교리와 교제와 교인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천도교인들은 서양을 정치·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문명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1907년 3~4월 「만세보」에 연재된 「玄機問答」에서 “敎는 밖으로 行實과 法律과 實業에 注意하여 名譽와 利益의 最優等を 自期하는데 衣服과 飲食과 居處와 藥을 各히 文明制度로 肉身に 適當한 度數를 맞추거니”²¹⁾라고 하여 천도교는 행실과 법률과 실업, 의복과 음식과 거처 등을 서양식 문명으로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정신적 혹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천도교는 서양의 종교보다는 천도교의 이념이 개인과 가정과 세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하였다. 천도교는 「현기문답」에서 “사람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집집마다 하늘 光彩로 文明하며, 世界가 하늘 光彩로 文明함이 敎의 精神이다.”²²⁾라고 하였다. 또 「대중정의」에서는 이 천도교의 사상문명이 현대문명의 前駕를 행함이 옳다고 하였다.²³⁾ 이종린은 1913년 『천도교회월보』에 글을 실어 “문명에는 일시적 물질을 개발하는 肉身文明과 영구적 도덕을 확장하는 聖靈文明이 있는데, 금일의 문명은 육신적 문명 같은 성향이 있다. 금일의 세계가 진실로 영구적 문명을 요구한다면, 사람을 대하기를 天으로 하고 大同太平할 大道大德인 天道敎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²⁴⁾

19) 『대한매일신보』 (1904. 9), 14쪽, <동학광고문>; 조규태, 『동아연구』 21, 88쪽.

20) 김추강, 「나대령의 기계」, 『신인간』 79 (1934), 5, 42-45쪽; 조규태, 『동아연구』 21, 90쪽.

21)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최기영·박맹수 편, 『韓末 天道敎 資料集』 1(國學資料院, 1997), 351쪽.

22) 천도교 중앙총부, 「현기문답」, 앞의 책, 354쪽.

23) 천도교 중앙총부, 「대중정의」, 앞의 책, 92쪽.

24) 이종린, 「一月一日」, 『천도교회월보』 30호 (1913. 1), 4-5쪽.

고 하였다.

3·1운동 후부터 1920년대에 걸쳐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이 추진되던 무렵, 천도교에서는 서양문명을 수립해야 할 신문화의 연원으로 간주하였다.²⁵⁾ 북경의 유학생인 李東谷은 1922년 「동서의 문화를 비판하여 우리의 문화운동을 논함」이란 글에서, ‘서양문화가 의지(Will)의 확장을 근본정신으로 삼아 과학과 民本(Democracy)을 특별히 발전시켰으나 동양문화는 의지의 調和를 근본정신으로 삼아 玄學과 順自然의 측면에서 특별히 문화를 산출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는 ‘서양 민족이 분투의 정신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개조하여 왔으나, 동양 민족은 安分과 禁慾으로써 고정되고 응체되어 문화가 퇴화되고 枯化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정치에 있어서 ‘서양문화는 전제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개성을 중시하여 자유와 평등의 데모크라시를 시행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생활 방면에 있어서 ‘서양의 문화가 個性의 신장과 法治를 신성시 하여 가족 간에는 서로 自我的 만족으로써 사랑을 유지하며 공동의 권위와 의무를 공동으로 노력하고, 朋友 간에는 피차 개성을 존엄하여 信義를 保維하며, 사회·국가·세계에 대하여는 개인의 主義를 高調로 여기면서도 가족과 소수보다 사회와 다수를 중시하고 법치를 본위로 하여 사회생활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또 종교와 철학에 있어서, 그는 ‘서양의 문화가 미신에 굴복하거나 의뢰하지 아니하고 人神을 숭배함으로써 진리를 찾으려 하는데 반하여, 동양의 문화는 우주를 존엄하게 보지만 인생을 낮게 평가하여 허위의 神을 미신하며 人生으로 하여금 그 신의 노예가 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半開의 상태에 있는 동양문화는 문화의 의식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을 본위로 하지 않아 현대의 생활에 해를 입히므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심지어 이동곡은 ‘東洋文化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거나 포기하고, 전반적으로 西洋文化를 계승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였다.²⁶⁾ 천도교청년회의 대표로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김기전도 “현세의 이익만 찾는 중국의 고유한 文學과 思想은 우리의 新文化를 건설하는 데 少毫의 자료를 공급할 것이 없다.”²⁷⁾고 하였다. 동

25)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의 내용」,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7), 71-92쪽. 이하 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지향하던 문화와 신인간의 정신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작성함.

26) 北旅東谷(李東谷), 「東西의 文化를 批判하여 우리의 文化運動을 論함」, 『개벽』 29호, (1922.11), 86-92쪽.

27) 妙香山人, 「中國文學의 價値를 論함」, 『개벽』 4호 (1920. 9), 86·90쪽.

양의 전통적 문화가 아닌 서구의 근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신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수용하려던 서양의 문화는 자기·자율·자력을 중시하는 서양의 자유주의사상에 기초한 문화였다. 손병희의 사위로 천도교 중앙총부의 大宗司長이었던 정광조는 “人乃天의 本位란 통속적으로 말하면 自己를 본위로 한다는 말이고, 무엇이든지 自己가 自己를 解釋하고 自己가 自己를 處分하는 것이고, 각기 自己의 自覺 下에서 自己의 한울을 自己가 깨닫고 自己의 행위를 스스로 깨달아 萬事萬理를 自己의 중심 下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이돈화도 문화시대에 있어서 교화의 궁극적인 기초는 자력이라고 하였다.²⁹⁾

아울러 천도교에서는 서양의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개인에게 심어 주려 하였다. 이돈화는 창조적 본능과 초월의식을 갖추라고 하였다.³⁰⁾ 박달성은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우주의 대자연을 자기의 心身에 담을 수 있는 대담하고 열정적인 인물이 되라고 하였다.³¹⁾ 신언준도 조선청년들에게 그치지 않고 前進하며, 勤勉하고 활동적인 靑年이 되라고 주장하였다.³²⁾ 또 김기전은 러스킨의 말을 인용하여 청년들에게 현재 가진 것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가지며, 특별한 곳을 가보기를 희망하는 진취적 정신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³³⁾

자기를 본위로 한다고 하여 이기적이고 생존경쟁적인 서양의 문화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도리어 천도교에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을 비판하고,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하려 하였다. 천도교 문화운동의 대표적 이론가인 이돈화는 글자의 의미상의 自由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自由란 유의식적·무의식적

28) 정광조, 「神視時代의 信仰과 人視時代의 信仰」, 『천도교회월보』 111 (1919. 12), 27-29쪽.

29)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85쪽.

30) 이돈화, 「사람성과 의식태의 관계」, 『개벽』 59호 (1925. 5), 5·6쪽.

31) 『동아일보』 (1921. 6.22), 4쪽.

32) 신언준, 『靑年同德에게』, 『新人間』 13호 (1927. 6), 20-21쪽.

33) 김기전, 『盲從으로부터 妥協에 妥協으로부터 自主에』, 『개벽』 12호 (1921. 6), 12쪽.

으로 타인의 행위와 스스로 협동·조화하는 단독적 행위라고 하였다.”³⁴⁾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수용하려던 서양의 문화는 사상적으로는 개인적 자유를 기초로 하면서도 전체 유기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문화운동기 천도교에서 인식한 서양의 문화는 자율적이고, 창조·진취적이며, 조화·협동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들은 이러한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문화를 건설하며,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신사회를 수립하기를 희망하였다.

IV. 전시체제기 천도교의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

동학시기에도 천도교에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무렵, 동학의 간부들과 교인들 중에는 인종주의적 시각에서 백인종인 러시아보다 황인종인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손병희가 일본 적십자에 거액의 자금을 내고, 다수의 교인들이 일본의 철도 건설을 지원한 데에는 “러일전쟁이 단순한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고 동양 대 서양의 인종싸움이며, 만일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우리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 될 수 없다”³⁵⁾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천도교에서 인종주의적 서양 인식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에는 동학과 천도교가 근대화운동을 추진하여 서양의 문화를 이룩해야할 모방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넘어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미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천도교의 서양인과의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급격히 변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 후 인종주의적 시각이 대두되었고,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생을 전후해서는 천도교인들의 인종주의적 인식이 강화·확산되었다.

34)이돈화,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人乃天主主義의 一瞥」, 『개벽』 45호 (1924. 3), 55-57쪽.

35)이종린, 「삼십년전 회상」, 『신인간』 160 (1941.10), 3쪽.

중일전쟁 발생 5년을 맞는 1941년 1월 『신인간』에 실은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드림」이란 글에서, 이룸 미상의 이 천도교인은 중일전쟁에 대한 인종주의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즉, 천도교인은 소위 황군이 서남으로 英·美의 援蔣루트를 차단하며, 佛·印의 영내까지 진주한 것을 “동양을 서양세력의 壓搾에서 구출하고 황인종 제민족을 백인종의 羈絆에서 해방시켜 대동양의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⁶⁾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1년 10월, 이종린은 당시를 동양과 서양이 인종전쟁을 벌인 러일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東洋의 血을 가진 자라면 4歲兒까지라도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시국”이라고 하였다.³⁷⁾ 조기간도 1941년 11월 “이번 시국을 잘 돌파하고 못하는 데에 따라 전 동양, 전 유색인종이 있고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³⁸⁾

태평양전쟁 1년 후인 1942년 12월에는 逸蓮 조기간이 「聖戰必勝의 三代要訣」이란 글에서 “키 크고 코 큰 米英의 코대들이 우리 동양사람을 키 작고 코 낮고 눈은 나왔다고 얼마나 업수이 보았습니까?”³⁹⁾라고 하였다. 그는 영국과 미국의 국민들을 ‘키 크고 코 큰 콧대’라고 하고, 동양인들을 ‘키 작고 코 낮고 눈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하여 영·미인과 일본인 사이의 신체적인 차이를 부각시켰다. 그럼으로써 그는 영·미인과 일본인 사이의 전쟁을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닌 인종간의 전쟁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정광조는 1943년 4월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今此大戦은 실로 ‘먹느냐 먹히느냐’하는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앵글로색슨의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拔本塞源的으로 潰滅淸掃하고야 我大日本帝國의 安泰를 기할 수 있는 동시에 아세아의 십억민중을 陷之死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대전쟁이다. 그야말로 국가천년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대전쟁이다. 그러니만큼 적으로 하여금 재기의 여력이 없을 만한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贏得하기까지는 결전에 결전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⁴⁰⁾

36)미상,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드림」, 『신인간』 152 (1941. 1), 2쪽.

37)이종린, 「삼십년전 회상」, 『신인간』 160 (1941. 10), 2-4쪽.

38)조기간, 「삼백만동덕에게 읍소」, 『신인간』 161 (1941. 11), 8쪽.

39)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8쪽.

40)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위의 글에서 정광조는 일본과 미국간의 태평양전쟁을 아세아인과 앵글로 색슨족 간의 싸움이라고 하였다.

인종주의적 인식이 강화·확산되면서, 천도교인들의 백인종과 서양세력에 대한 태도도 악화되었다. 조기간은 1942년 12월 「聖戰必勝의 三代要訣」이란 글에서 미·영의 서양세력을 ‘舊’·‘老人’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惡’, ‘盜賊’ 혹은 ‘인류의 公敵’이라고 비난하였다.⁴¹⁾

백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되는 것과 짝하여, 천도교인들은 백인들이 수립한 서양의 문명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예컨대 천도교의 한 교인은 “대신사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여 서양문명은 물질문명이요, 도덕은 假善의이요 이기적이요 개인적이다. 따라서 攻鬪侵略이요 약육강식이다. 천주를 신앙한다 하여 천리와 천의에 합치되는 도가 아닌 것을 개탄하였다.”⁴²⁾라고 하였다.⁴³⁾ 그럼으로써 그는 서양문명의 도덕은 가선적·이기적·개인적이어서 공격침략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사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 長崎祐三은 “일본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만 추구하며 我私我利를 도모한다면 그는 英美思想의 포로된 者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일본인으로서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한갓 생존권을 요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露西亞思想의 포로된 자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統一無垢의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고, 修禊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그는 영국과 미국 및 러시아의 개인주의·민주주의·공산주의 사상을 사리사욕을 일삼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한갓 생존권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천도교인 중에는 서양의 학문적 방법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컨대 三敬長元은 서양문화에서 논리학적·수사학적 논법으로 정연하게 이론이 짜였으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41)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5·7쪽.

42) 야뢰(이돈화), 「동경대전 해설」, 『신인간』 162 (1941.12), 25쪽.

43) 長崎祐三, 「統一無垢의 일본인이 되라」, 『신인간』 177 (1943. 5), 5쪽.

처럼 생각하는데 이것이 서양문화의 죄악이라고 하였다.⁴⁴⁾

서양인, 서양문화, 서양학문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던 천도교인들 중의 몇몇은 궁극적으로 서양이 몰락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제민족이 부상하는 것을 하늘의 명령과 이치이며, 운수라고 이해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간은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구성원리로 한 영·미의 세계제패권이 壞滅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暴淚慘憺한 영미의 착취압박 하에 뱉히어 인고에 인고를 쌓아오던 동아시아 제민족 제국가군은 皇國 日本을 맹주로 (중략) 신세력으로써 조성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은 天命·天理·天運”이라고 하였다⁴⁵⁾

이런 인식 하에 어떤 천도교인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세계의 신질서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천도교인 和田欽五(李君五)는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 163호에서 “아 大日本神國의 사명인 대동아공영권 확립, 세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一億一心으로 強念強進하면서 身沒하면 귀신의 靈力으로 活動佑助하고, 又 再生하면 後身으로 繼進하여 차 세계에 敵魔의 형적을 驅逐掃淸하는 것이 眞是 神國 臣民의 본무인 것을 大覺長進할 뿐입니다.”⁴⁶⁾라고 하였다. 조기간은 전쟁을 통한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後天開闢이라고 하면서 옹호하였다.⁴⁷⁾

檀庭(朴流)은 일본이 중일전쟁을 벌이는 것을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영국과 미국, 소련이 동아시아 신질서의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을 영원히 착취시장의 대상으로 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인 만큼 향후 이들을 배격하기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천도교인 중에 혹자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 신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우리가 皇國인 일본의 臣民임을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광조는

44) 三敬長元, 「실생활과 교리」, 『신인간』 166 (1942. 5), 10쪽.

45)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5쪽.

46) 和田欽五, 「神國臣民의 본무」, 『신인간』 163 (1942. 1), 11쪽.

47) 조기간, 「삼백만 동덕에게 읊소」, 『신인간』 161 (1941.11), 8쪽.

48) 단정(박완), 「동아시아신질서 건설」, 『신인간』 148호 (1940. 8), 16쪽.

“일본 국토는 現神天皇의 御宇하신 神域이요, 일본 국민은 현신천황의 神子神孫이다. 일본국가를 一 가정이라 하면 천황은 가장이요 국민은 가족이며, 一 신체라면 천황은 頭首요 국민은 사지백체의 세포이다.”라고 하였다.⁴⁹⁾ 또 천도교의 이론가인 이돈화는 “人乃天은 인간이 곧 神의 자라는 뜻이므로, 천도교의 정신은 일본을 神國, 일본인을 神子·神孫으로 보는 일본 국체의 정신과 부합한다.”⁵⁰⁾고 하면서, 천도교의 이념으로 볼 때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의 천도교인들은 우리를 황국의 신민에 걸맞는 皇道精神으로 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와 천황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함양하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長崎祐三 1943년 5월 「순일무구의 일본인이 되라」라는 글에서 국가를 위해 개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깨끗이 씻어버리라고 하였다.⁵¹⁾ 그리고 조기간은 동아 내지 세계질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일억황민이 자유주의·공리주의·유물주의·향락주의 등등의 스프를 섞지 않은 皇道精神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루라고 하였다. 즉 ‘君民一體와 億兆一心’을 중핵사상으로 하고 ‘군신의 義와 부자의 情’이란 가족주의원리에 입각한 정신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⁵²⁾

그리고 천도교인 중의 혹자는 황국의 발전과 황국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조기간(川谷正)은 1943년 4월 「창도백년을 바라보면서」라는 글에서, 근로, 절약, 저축 기타일절의 직역 등의 봉공과 아울러 인재의 양성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⁵³⁾ 그리고 정광조는 우리들 국민의 재산과 자녀와 신명은 온통 폐하의 소유이니 진정 ‘천황귀일’의 신념이 철저하다면 때와 장소를 따라서는 폐하를 위하여 생산증강이나 소비절약이나 저축목표달성이나 징병제뿐만 아니라, 사생을 鴻謨와 같이 버리라고 하였다.⁵⁴⁾

49) 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50) 白山一熊, 「인내천의 재음미」, 『신인간』 161 (1941.11), 6쪽.

51) 長崎祐三, 「순일무구의 일본인이 되라」, 『신인간』 177 (1943. 5), 5-6쪽.

52) 逸蓮, 「聖戰必勝의 三代要訣」, 『신인간』 172 (1942.12), 6-7쪽.

53) 川谷正, 「창도백년을 바라보면서」, 『신인간』 176 (1943. 4), 11쪽.

54) 川上廣朝, 「이사장 제위에게 고함」, 『신인간』 176 (1943. 4), 2쪽.

전시체제기 천도교인들은, 문화운동기에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동경하고 찬양하였던 것과 달리, 서양의 문화와 문명을 공격하고 동양문화를 찬양하며 그 부활을 희망하였다. 천도교의 이론가인 이돈화는 大神師인 최제우가 동양문명을 지금 쇠퇴부패된 경향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하면 정신적이고 天道天理이고 誠敬信이고 王道皇道이고 공존공영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동양문명을 찬양하였다. 더욱이 그는 세계를 구제할 도가 동양정신문명의 부활에 있고, 동양정신의 총결정체는 동학이라고 하였다.⁵⁵⁾

V. 맺음말

동학은 1860년 서양인과 서학 등 서양을 타자로 인식한 최제우에 의하여 창립되었다. 최제우는 동양인의 타자로서 서양인을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그 조화로써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싸우면 당할 자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서양인을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시비의 구별이 없으며 천주를 위하는 측면이 없고 단지 자신만을 위할 뿐이어서 몸에 기화가 없고, 배움에도 천주를 위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서양인들을 신의가 없고, 약탈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최제우는 서학에 대해 말하기를 동학과 運과 道는 같지만 이치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그는 동학이 無爲而化를 理致로 삼는 데 반하여 서학은 虛無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처럼, 최제우는 서양인과 서학을 동양인과 동학의 타자로서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 만연하는 서학을 제압하기 위하여 東學을 창시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시에도 동학도들은 서양에 대해서 반서양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동학도들은 서양인을 오랑캐라고 비하하고, 서학을 ‘西夷之學’이라고 폄하하였다.

그런데 손병희가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천도교의 창시 이후에는 동학과 천도교는 서양인과 서구의 문명을 모방하고, 달성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1904년 갑진개화운동 당시 천도교인은 서양인을 재예가 통달하여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문명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간주되었다.

55)야퇴(이돈화), 『동경대전 해설』, 『신인간』 162 (1941.12), 25쪽.

1920년대 문화운동기에 있어서 천도교인들은 서양의 문화가 자아와 자율과 자력, 진취성과 창조성, 조화와 협동의 정신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신을 갖춘 신인간을 형성함으로써 신문화를 수립하고, 그럼으로써 이상적인 신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에 있어서, 서양의 문화와 문명은 천도교인들에게 희구의 대상이 되었고, 서양인은 형성해야 할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특히 태평양전쟁기에 들어와, 일부의 천도교들은 당시를 백인종과 황인종의 전쟁의 시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서양인을 ‘구’, ‘노인’이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악’, ‘도적’, ‘인류의 공적’이라 하여 비난과 제거의 대상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인들은 서양인이 수립한 문명도 가선적·이기적·개인적이고, 공격침략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신질서의 수립을 위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문명을 파괴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반하여, 일부의 천도교인들은 우리와 일본인을 황국신민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황국신민이 주도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과 세계신질서의 수립을 염원하였다. 또한 천도교인들은 서양문명을 비하하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동양문명을 높이 평가하였다. 심지어 천도교 중에는 교인들에게 천도교의 人乃天의 교의 하에 황국신민의 위상을 이해시키고, 동귀일체의 교리 하에 君民一體, 億兆一心의 정신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루고, 皇國의 臣民으로서 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천도교인 중 혹자는 교인들에게 근로, 절약, 저축, 기타 일절의 직역 등을 행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재산과 자녀와 신명을 바치라고 하였다.

ABSTRACT

Donghak and Cheondogyo's Understanding of the West

Cho Kyu Tae(Hansung University)

Donghak was founded in 1860. Seohak of east study grew fashionable in the east, and westerners invaded Ching dynasty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From the fear toward the west, Choe Je Woo founded Donghak.

About that time, Choe Je Woo criticized westerners as faithless. And he evaluated Seohak more critically than Donghak in the matter of religion and morality.

The front and rear of the Donghak Peasants Movement in 1894, Donghak Believers called westerners robbers of the west and barbarians. And they believed Seohak as the study of barbarians.

But the attitude of Donghak toward the west was changed about 1904. Son Byung Hee of the third Donghak pope went to Japan in 1901. He met some persons oriented for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He learned about the western country and civilization from them. Then he thought the west as the area of civilization. Donghak believers organized the Jinbohoe in 1904. And they developed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movement. It was the movement toward western civilization, although they didn't ignored the value of the eastern civ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movement, Donghak changed the name of Donghak to Cheondogyo.

From that time, especially after the 3 · 1 Movement, Cheondogyo had developed cultural movement for western civilization. Cheondogyo believers wanted to make new men with new culture, which was made around self-consciousness, progressive spirit, creativity, and the spirit of harmony and cooperation.

But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a few of Cheondogyo believers thought westerners as the object of attack and reproach

and removal. They revealed a racism to kill the white people. Also they thought the we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to the object of demolition. Because these were formed around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On the other hand, they believed the rise of the yellow people. Thus they urged the coalition of the yellow people to cast out the white people. And they admired the ea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Some persons said Cheondogyo believers to form the spirit of Japan emperor's subjects as the essence of the eastern culture and civilization.

sooahn99@paran.com

Key Words: Donghak, Cheondogyo, Choe Je Woo, Son Byung Hee, cultural movement, the spirit of Japan emperor's subjects

■ 논문 ■

밀로셰비치와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오승은(한성대학교)

I. 들어가며: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주범인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된 지 올해로 19년이 됐지만,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탄생 자체가 ‘인위적인 산물’ 이어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가하면, 반면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는 결코 필연적이지 않았으며 잘못된 정치로 인해 와해되는 비운을 맞았다는 주장도 있다.¹⁾ 해체가 필연적이지 않았음에도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서구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해, ‘폭력적 민족성’,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실패’, ‘경제 위기’, ‘티토 사후 정치적 공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 각기 특정 분야를 조망하고 있다.²⁾

- 1)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는 Stevan K. Pavlowitch, *The Improbable Survivor: Yugoslavia and Its Problems, 1918-1988*, Hurst, 1988.
- 2)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서구 음모론으로는 Davorin Rudolf, *Rat koji nismo htjeli, Hrvatska 1991* (Zagreb: Nakladni zavod Glubs, 1999), pp.19-35; Bogdan Denitch, *Ethnic Nationalism: The Tragic Death of Yugosla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p.52.; Rodney Atkinson, “Yugoslavia and its Enemies, 1903-1998,” 222.1335.com/serbian/html(검색일:2009년 10월20일); Marko Attila Hoare, “Nothing Is left”, *Bosnia Report*, No.36, (2003), p.32; Sabrina Ramet, “Yugoslavia and the Two Germans”, in Dirk Verheyen, *The Germans and Their Neighbors*,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328 참조. 둘째, 공산주의 해체와 같은 외적 요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해선 James Gow, *Triumph of the lack of Will: International Diplomacy and the Yugoslav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Sabrina Ramet, “The Yugoslav Crisis and the

그리고 그 논란의 한가운데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Slobodan Milošev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서있다. 1980년대 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그에 따른 해체전쟁(1991~1995)을 치르는 과정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이끌며 유고슬라비아를 파탄으로 이끌고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 넣은 주범으로 치부되어왔다. 2001년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유엔국제전범재판소(the UN War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3월 사망할 때까지 그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도 밀로셰비치이다. 서구 주류 입장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소수의 서구 학자들과 언론인은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를 해체 시킨 주범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를 해체위기로부터 구해내려 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다.³⁾ 더 나아가 밀로셰

West: Avoiding ‘Vietnam and Blundering into ‘Abyssinia’,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8, No.1, (1994), pp.189-219 참조.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서는 첫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간의 구원’을 조명하는 연구가 있다. Robert Kaplan, *Balkan Ghosts: A Journey Through History*, (New York: Vintage, 1994); John Keegan, “A primitive conflict only anthropologists can understand”, *Daily Telegraph*, 1993년 4월 15일 혹은 같은 저자의 책 *A History of Warfare*, (London: Pimlico, 1993), p.6, pp.55-56. Mark Mazower,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New York: Vintage, 1998), p. xiv에서 인용 참조. 둘째, ‘남슬라브인들의 폭력적 민족성’을 언급하는 논의가 있다. Arnold Suppan, “Yugoslism versus Serbian, Croatian and Slovene nationalism”, Norman M. Naimark and Holly Case, (ed), *Yugoslavism and its Historians: Understanding the Balkan Wars of the 1990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128 참조. 셋째, ‘경제적 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보는 논의에 대해서는 Rika Harris, *Nationalism and Democratization: Politics of Slovakia and Slovenia*, (Aldershot, England: Ashgate, 2002), p.16, Susan L. Woodward, *Socialist Unemployment: The Political Economy of Yugsolavia, 1945-199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p.352, 355, 359, 364.가 있다. 넷째, ‘민주화’ 실패를 드는 요인으로는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olitical Identities and Electoral Sequences; Spain, the Soviet Union, and Yugoslavia,” *Daedalus*, Vol.121, No.2, (1992), p.126.이 있다. 이들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합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기 다른 요인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이들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 했다가 보다는, 다른 요인과의 연계 속에서 함께 작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좀 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Noam Chomsky, “Chomsky Comments on Milosevic Ouster,” Thursday,

비치는 서구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 진행되는 악마화 작업(demonization)의 희생자로 보고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전직 미국 법무부 장관 램지 클락 Ramsey Clark, 불가리아 인권 위원장 벨코 발칸노프(Velko Valkanov) 등의 인사들은 <밀로셰비치를 변론하기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to Defend Slobodan Milošević)>를 수립하여 밀로셰비치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석방’을 요구하였다.⁴⁾ 비판적 성향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롤드 핀터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밀로셰비치를 위한 예술가들의 청원(Artists’ Appeal for Milošević)” 운동에 참여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⁵⁾

그렇다면 이렇게 밀로셰비치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만큼 유고슬라비아가 처했던 역사적·정치적 상황이 복잡하며, 단순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이다. 그 복잡함을 염두에 두고 유고슬라비아 문제를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이라는 두 가지 사건 내지 과정을 분리해서 고찰해보는 것이다. 두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동일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회자되었던 이야기처럼 ‘체코슬로바키아처럼 평화롭게 해체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밀로셰비치는 가 아니었어도 ‘유고슬라비아는 해체의 수순을 밟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티토가 자신의 사후를 예상하고 수립코자 했던 1974년 신헌법은 밀로셰비치가 부상하기 이전 이미 유고슬라비아의 정치 향방을 결정할 중대 사건이었다. 즉 기존의 연방(federation)을 더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confederation)으로 바꾸고자 한 신헌법 체제의 실현은 궁

October 12, 2000, <http://www.zcommunications.org/chomsky-comments-on-milosevic-ouster-etc-by-noam-chomsky>(검색일: 2010년 9월 27일); Michael Parenti, *To Kill A Nation: The Attack On Yugoslavia*, (London: Verso, 2000); The “Demonization of Slobodan Milosevic.”, December 2003, <http://www.michaelparenti.org/Milosevic.html>(검색일: 2010년 9월 27일); Edward S.Herman and David Peterson, “The Dismantling of Yugoslavia: A Study in In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a Western Liberal-Left Intellectual and Moral Collapse),” *Monthly Review*, Vol. 59, No. 5, (October 2007).

4) www.icdsm.com

5) “Free Milosevic, says Pinter”, *The Guardian*, Thursday 26 July 2001, <http://www.guardian.co.uk/world/2001/jul/26/warcrimes.balkans1>, (검색일: 2010년 9월 26일).

극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제기됐었다. 신헌법이 발표되자, 유고슬라비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가 ‘2024년까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를 예상했던 것만 보아도 신헌법이 가진 파괴적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티토 사후의 가중되는 위기 속에서 밀로세비치의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도 민족주의는 다시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역사적 국가 소유권pravostvo’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하였다. 밀로세비치의 정치적 부상은 다른 공화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부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였지만, 그가 없었더라도 민족주의 세력이 성공적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일단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치하는 상황 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견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밀로세비치가 결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꼭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⁷⁾ 그럼에도 실제로 전쟁을 구상해 실행해 옮긴 것이 밀로세비치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상호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민족주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6개 공화국 전역에서 발흥 하는 상황 하에서, 평화적인 타협점과 전쟁 이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전쟁의 불가피성을 떠나,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배후 조종한 세력이 밀로세비치임은 확실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저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을 분리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밀로세비치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재건’

6) 질라스는 1974년 가진 한 인터뷰에서 ‘2024년이 될 때까지 유고슬라비아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4개국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으로 전환 될 것이며, 후에 별개의 독립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Milovan Djilas, “A World Atlas for 2024”, *Saturday Review-World*, 24, August 1974, p.25, Sabrina P. Ramet., ‘Explaining the Yugoslav meltdown, 1’, p.735에서 인용.

7) 이런 입장으로는 Laura Silber and Alan Little, *The Death of Yugoslavia*, (London: Penguin, 1995), Nora Beloff, *Yugoslavia: An Avoidable War*, (London: New European Publications, 1997) 참조.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과 ‘남슬라브 공동국가’ 유고슬라비아

원래 밀로셰비치가 원한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그럼에도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해체의 주범’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상관없이 아니라,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1987년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의 연방의 재건을 내건 이유는 티토와 같은 ‘빨치산 혁명세대’의 진정성 정치가 작용해서는 아니었다.⁸⁾ 티토 사후 무주공산의 유고슬라비아 정치에 새로운 주인이 되겠다는, 다시 말해 ‘제2의 티토’가 되겠다는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야망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세르비아 민족 문제’ 해결이었다. 1980년대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위기와 그에 따른 해체 가능성의 대두는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Srbi izvan Srbije)’라는 문제를 다시금 야기시키고 있었다. 1919년 베르사이유 체제 수립 이후 동유럽 많은 국가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한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동포의 양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⁹⁾ 세르비아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인구의 1/3은 세르비아 공화국 밖(주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공동 국가 안에서 세르비아 민족문제는 수그러드는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¹⁰⁾ 1970년대 논의를 이끌었던 세르비아 지식 엘리트 중의 한명인 유리치(Mihailo Đurić)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 공화국 세르비아의 현 국경은 민족적이지도 않고 세르비아 민족

-
- 8) Louis Sell, *Slobodan Milosevic and Destruction of Yugoslav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3), 제4장 “A New Tito” 참조.
- 9) 베르사이유 체제 이후의 동유럽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Mark Mazower,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London: Vintage, 1998), 제 2장 “Empires, Nations, Minorities” 참조
- 10) 19세기 민족주의가 동유럽에서 발흥된 이후,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제국에 사는 크로아티아인을 중심으로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남슬라브인들을 한 데로 규합하여 남슬라브인들의 공동 국가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Barbara Jelavitch, *History of the Balkans: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Vol.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Ivo Goldsteine, *Croatia A History*, (C.Hurst & Co., 2001: Ivo Banac, *The national question in Yugoslavia: origins, history,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참조.

의 역사적 국경과 일치하지 않음은 명백하다.....세르비아 민족은 (연방)5개 공화국 중 4개 공화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 중 단 한 군데서도 세르비아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세르비아 사람들이.....다시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순간에 세르비아 사람들은 현 사회주의 세르비아 공화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¹¹⁾

1974년 개헌으로 제정된 신헌법은 이 오래된 세르비아 민족문제를 다시 대두 시키고 이었다. 신헌법 하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연방(federation)이라기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더 가깝게 재구성되었다.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외하고 각 공화국은 이제 거의 별개의 국가(quasi-state)로써 기능하게 되었다. 독립국가화 된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의 처우 문제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세르비아 민족엘리트나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다. 이런 우려는 유고슬라비아가 1980년 이후 위기에 직면하면서 더욱 현실로 나타나는 듯했다. 1986년 9월 <세르비아 학술원Srpska Akademija Nauka i Umetnosti>이 발표한 『비망록(Memorandum)』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¹²⁾ 후에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상징 문서처럼 되어버린 이 『비망록』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은 자신들의 언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³⁾

정치적 야망을 키우고 있던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학술원이 발표한 『비망록』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용성을 간파하였다.¹⁴⁾ 위로부터는 세르비아 공산당 지도부가 세르비아인들의 불만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능력을 질타하며, 반(反)관료주의 개혁을 일으키고, 밑으로부터는 억압받고 위기에 처한 세르비아 민족의 수호자로 자처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치

11) Mihailo Đurić, “Smišljene, smutnje,” *Anali Pravnog Fakulteta u Beogradu*, 3, 1971, p.231, Dejan Guzina, “Socialist Serbia’s narratives: From Yugoslavia to a Greater Serbia”,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Vo.17, No.1, (Fall 2003), p.97 인용.

12) Kosta Mihailović and Vailije Krestić, *Memorandum of the Serb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Answers to Criticisms*, (Belgrade: Serb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1995)

13) *Ibid.*, pp.116-140.

14) *Ibid.*, p.103.

아젠다로써 십분 활용하고자 하였다.¹⁵⁾ 일단 권력을 잡은데 성공한 밀로셰비치는 1974년 헌법을 폐지하고 다시 중앙집권적 권력이 강화된 연방으로 유고슬라비아를 재탄생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권한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약한 세르비아, 강한 유고슬라비아(slabo Srbija, jaka Jugoslavija)’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면, 밀로셰비치는 그것을 뒤집어 ‘강한 세르비아, 강한 유고슬라비아(jaka Srbija, jaka Jugoslavija)’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¹⁶⁾ 밀로셰비치는 집권 후 바로 코소보와 보이보디나 두 자치주의 자치권을 강압적으로 박탈하며 세르비아에 재통합시켰다. 또한 연일 ‘진실의 집회(Miting istine)’라는 관제 집회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열며,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타 공화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공화국은 세르비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치주와는 달랐다.

19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위기는 세르비아 민족주의만 자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의 정통성 약화는 그동안 반체제 인사로서 탄압을 받았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 등의 민족주의 세력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1960년대 말 터진 크로아티아 민족 불만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있던 후 크로아티아의 재야 세력은 오랜 기간 정치적 침묵(Hrvatska šutnja)을 지키고 있었다.¹⁷⁾ 1980년대 말 이 정치적 침묵을 깨며 민족주의 재야 세력은 정치무대로 돌아오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민족주의 사학자 투지만으로, 1989년 <크로아티아 민주연합(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라는 신생정당을 세워 크로아티아

15) Slavoljub Đukić, *Kako se dogodio vođa, Filip Visnjić*, (Beograd, 1992).

16)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소속된 6개 공화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중 유일하게 세르비아에만 2개의 자치주(북쪽에는 보이보디나 Vojvodina), 남쪽에는 코소보(Kosovo)를 설립하였다. 제1차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세르비아의 힘을 대폭 줄이고자 한 조치였다. 그런 만큼 세르비아의 민족 불만은 티토 집권 시절 내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aura Silber and Allan Little, *Yugoslavia: Death of A Nation, revised and updated*, (London: Penguin Books, 1997), pp.58-69 참조.

17) Seung Eun Oh,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PhD Thesis, University of London, (2002), p.64.

민족주의 동원에 나섰다.¹⁸⁾ 같은 해 보스니아에서는 무슬림 민족주의 선동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알리야 이제베고비치가 <민주행동당 (Stranka demokratske akcije)>를 창당하며, 정치 무대로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웃한 동유럽 국가들에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족적인 재야세력이 복귀하고 있었다면, 재야세력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에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 부활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으로 넘어서면서 각 공화국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 세력은 공식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이에 유고슬라비아의 정치구도는 1980년 말까지만 해도 ‘공산당과 민족주의 세력의 대항관계’로 규정된다면, 1990년대가 되면서 ‘민족주의 세력 대 민족주의 세력의 대립’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 정치구도가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로 바뀌자, 밀로셰비치의 정치적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문제는 연방이 너무 느슨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음’을 주장하며 유고슬라비아의 재연방화를 주장하였다. 그러자 크로아티아의 투지만 대통령이나 슬로베니아의 쿠찬 대통령은 ‘연방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생긴 문제이므로 유고슬라비아를 국가연합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¹⁹⁾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입장에서 보면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재건은 사실상 세르비아의 재건과 다름이 없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아닌 ‘세르비아-슬라비아(Srbislavia)’를 의미했다. 이렇듯 입장이 다른 상황 하에서 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연방파와 反(반)밀로셰비치가 이끄는 연합파가 합의점을 찾기는 못내 어려웠다.

III. 밀로셰비치와 ‘대(大)세르비아’ 건설

새로운 목표: 대(大)세르비아 건설

1990년 1월 제14차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임시총회의 실패를 계기로 연방파와 연합파간의 협상은 희망이 없음이 명확해졌다. 이때부터 그간 협상용 카드로만 제시되었던 ‘대(大)세르비아(Velika Srbija)’ 건설은 현실

18) *Ibid.*

19) Marcus Tanner, *Croatia A Nation Forged in Wa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7)

적인 대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간 밀로셰비치는 협상에 임하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탈퇴 한다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 동포들도 하야금 민족자결권을 행사 각각의 공화국으로부터 탈퇴, 모국인 세르비아 공화국에 합류시키겠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크로아티아에는 전체 크로아티아 인구의 11.6%에 해당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보스니아에는 전체 공화국 인구의 31%에 달하는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지역을 원래 소속된 공화국에서 떼어내 세르비아에 통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간 밀로셰비치는 1974년 헌법에 명시된 연방 탈퇴권을 포함하는 자결권을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지 ‘공화국’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대(大)세르비아’ 건설을 주장해왔었다. 세르비아 주간지 『브레메(Vreme)』의 밀란 밀로셰비치(Milan Milošević)가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大(大)세르비아 건설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고슬라비아 최대 민족, 세르비아의 힘을 지나치게 확신하며 오만하게 협상을 밀어붙인 결과, 결국 大(大)세르비아 건설의 실현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²¹⁾

밀로셰비치가 주창한 ‘대(大)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 동남부 지역(크라이나 지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면해있는 동남쪽 지역)과 북동부 지역(슬라보니아 지역, 세르비아와의 북서쪽 국경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을 말한다. 크라이나(Krajina) 지역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남쪽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大)세르비아를 건설한다면, 세르비아의 국경선이 중간에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서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고 있었다.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가 지닌 군사적 우위에 힘입어 전쟁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유럽 5대 군대’로 손꼽히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이 밀로셰비치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1991~1992년

20) *Ibid.*

21) 본 연구자가 2003년 1월 15일 베오그라드에서 행한 개인 인터뷰.

22)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티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를 지탱해주는 3대 버팀목이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상황 하에서 연방의 강화를 주장하는 세르비아 주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밀로셰비치가 처음에 내세운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강화와 보존이었기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은 자연 밀로셰비치의 목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후에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지도부는 밀로셰비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만, 이미 군 통제권은 밀로

사이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계 주요 인사들과 나눈 통화가 도청되었는데, 밀로셰비치가 1991년 8월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라도반 카라쥐치(Radovan Karadžić)와 나눈 통화에 이런 자신감이 잘 드러난다. “우리는 강력해. 우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수립할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와 싸우고자 한다면 오라고 그래. 우리가 더 강력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²³⁾

우선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선동과 규합에 나섰다.²⁴⁾ 이들 ‘세르비아 밖의 세르비아인들’에게 유고슬라비아는 자신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았다. 이들은 수백 년간 크로아티아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민족주의가 발흥될 때마다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 받게 됨을 수차례 경험해왔다. 가장 폭력적인 것은 2차 대전 당시 크로아티아 극우 민족주의자 우스타샤(Ustaša) 손에 의한 대량 학살 경험이었다. 그런 만큼 유고슬라비아 체제 위기는 이들의 존재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었다.²⁵⁾ 특히 전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40%를 차지하는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Krajina Serbs)의 불안감은 컸다. 크로아티아 민족세력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이들 크로아티아 거주 세르비아인들에게 밀로셰비치의 선동 작전은 쉽게 먹혀들어갔다. 선 밀로셰비치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의 선동과 규합에 나섰다. 세르비아의 주간지 『브레메』 편집자 밀로쉬 바시치(Miloš Vasić)에 따르면, 밀로셰비치는 언론 플레이를 이용하여 ‘크로아티아에 사는 세르비아

세비치에 넘어가 있었다.

23) 이 도청 자료는 2004년 6월 헤이그 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ICTY)에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Josip Gludrić, “Inside the Serbian War Machine: The Milošević Telephone Intercepts, 1991–1992”,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 23, No. 1, (February 2009), p.94에서 인용.

24)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발칸반도를 거쳐 서진(西進)함에 따라 합스부르크 제국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현재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영토에 군사 국경선을 세워, 세르비아인들을 이곳에 이주 시켜 일종의 ‘인의 장막’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주해온 세르비아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이들에게 군사방어의 의무를 부과시켰다. 이후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 영토에 거주하게 되었다.

25) 전쟁 전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혼란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Ejub Štikovac, “Croatia: The First War,” Jasmina Udovički & James Ridgeway, (ed), *Burn This House: The Making and Unmaking of Yugoslav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7), pp. 154–163.

인들(Hrvatski Srbi)’을 자극하여 민족분규를 일으키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1년 3월 15일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의 모든 시장을 소환한 회의에서 크로아티아에서 민족분규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였다. 대규모 미디어 캠페인을 벌여 크로아티아에 사는 세르비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로운 대량학살’의 위험에 처했음을 납득시키고자 하였다..... 이제 이 계획은 밀로셰비치의 수중에 있었다.²⁶⁾

동시에 밀로셰비치는 밀란 마르티치(Milan Martić)와 밀란 바비치(Milan Babić)와 같은 이 지역 하수인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조직화에 들어갔다. 세르비아 비밀경찰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지원 하에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²⁷⁾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 정부 간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은 신생정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이 크로아티아에서 집권한 1990년 5월부터였다. 이들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보다 10배 이상이나 강한 크로아티아 정부군과 충돌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쟁 발발하기 1년 반전인 1990년 4월 크로아티아 총선이 열린 직후부터 6월까지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 즉 ‘크라이나 세르비아인들’(Krajina Serbs)은 세르비아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크라이나, 슬라보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의 ‘자치지역’ 설립을 선언하여 정치적 조직화에 나섰다. 정치적 조직화는 군사적 조직화와 맞닿아 진행되었다. 세르비아인 다수지역에서 경찰관, 유고슬라비아 지역 방위 예비군, 지원자를 중심으로 하여 12,000명의 크라이나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1991년 봄 이 자치지역은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epublika Srpska Krajina, RSK)로 승격되었다.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공식 선언하자,²⁸⁾ 세르비아 분리주의자들은 크로아티아군과 전쟁

26) *Yugofax*, 14 September 1991, Mark Thomson, *Forging war: the media in Serbia, Croatia, Bosnia and Hercegovina*, (Luton: University of Luton Press, 1999), p.81 인용.

27) Martin Špegelj, “The First Phase in War,” Branka Magas and Ivo Zanic, *War in Croatia and Bosnia-Herzegovina 1991-1995*, (London: Routledge, 2001), p.25.

2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의 무슬림 지도자 알리야 이젯베고비치(Alija Izetbegović) 대통령은 2월29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보스니아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투표자의 90%(총 유권자의 63%) 지지를 얻어 3월 독립선언을 했다.

상태에 돌입했다.

보스니아에서의 전쟁도 크로아티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밀로셰비치의 사주를 받은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정치, 군사적 준비에 들어갔다. 1991년 4월 26일 라도반 카라쥐치(Radovan Karadžić) 주도 하에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은 ‘보스니아 크라이나 자치시(Zajednica opština Bosanske Krajine)’의 설립을 공표하고 보스니아의 북서쪽에 위치한 바냐 루까(Banja Luka)를 본부로 선포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자치지역은 1991년 가을까지 보스니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2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4월 7일 선언하자,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자치지역’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공화국(Republika Srpska)’으로 승격 선포하며 본격적인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²⁹⁾

전쟁수행의 주요 전략: 인종청소

전쟁의 목표가 ‘대(大)세르비아’건설이라면 전쟁의 주요 전략은 인종청소였다. 인종청소는 “대량학살과 추방, 의도적인 테러 행위, 약탈, 사회적 모욕, 집단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다른 민족을 제거하는 정책을 의미한다.³⁰⁾ 유고슬라비아는 ‘모자이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인종분포가 복잡하기로 악명 높다.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해도 온전히 세르비아 사람들만이 사는 지역은 없다. 거기에 더하여 세르비아인들이 사는 마을이나 도시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히 보스니아에서는 표범 무늬 패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세르비아인들만을 위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29)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들 뿐만 아니라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인들도 보스니아 무슬림 정부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들은 서부 헤르체고비나에 헤르체그 보스나(Herzeg Bosna)라는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크로아티아와 통일하고자 하였다. 이들간의 전쟁은 1993년 본격화되어 1994년 미국 주선의 워싱턴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박사논문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Croatian Nationalism”, Department of War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2001), 제 6장 “Unification Nationalism: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 and The Pursuit of Greater Croatia” 참조

30) Mark Mazower, “Violence and the State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107, No.4, (Oct. 2002), p.1162.

것은 비(非)세르비아 민족은 내쫓거나 죽이는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였다. 전쟁 목표를 ‘대(大)세르비아’건설로 설정하는 순간,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정해진 셈이었다.

크로아티아 전쟁의 대명사로 불리는 부코바르(Vukovar)에서의 싸움을 보면 왜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에 ‘인종청소’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베오그라드에서 80km 떨어진 부코바르는 1991년 7월 17일부터 유고슬라비아 인민군과 밀로셰비치가 조직한 사병(paramilitary) 조직 ‘체트닉’(2차 세계대전 대독일 항전을 한 세르비아 저항군)과 ‘티그레(호랑이들, Tigre)’의 집중 포화공격을 받았다. 밀로셰비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었던 밀로셰비치는 별도의 준군사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은 전쟁기간 내내 민간인 학살과 약탈 등을 저질렀다.³¹⁾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의 포화가 시작되자 부코바르의 주민들은 부코바르 병원의 지하로 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국 부코바르는 함락되었고, 병원에 있던 420명의 환자는 크로아티아 정부군 하의 영토로 이송하기로 주선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명의 성인 남자는 어디론가 끌려가 학살되었다. 그리고 1992년 오브차라(Ovčara)라는 부코바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들을 묻은 임시공동묘지가 발견되었다. 이들뿐만 아니라 부코바르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형되어, 부코바르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었다. 세르비아군은 이렇게 크로아티아 영토임에도 자신들의 전쟁목표 지역에 사는 크로아티아인들을 내쫓고, 죽였다.

보스니아에서 인종청소는 더 잔혹하게 저질러졌다.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연방 내에서도 가장 민족분포가 복잡한 곳임을 감안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보스니아 전쟁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보스니아 동남부에 위치한 스레브레니짜(Srebrenica)의 경우 1995년 7월 13일-19일 사이 8200명 이상의 남자가 학살당했다. 또한 여성들은 집단강간을 비롯한 성고문의 대상으로 삼아, 임신시킨 뒤 중절이 불가능할 때까지 수용소에 수용한 뒤 풀어주었다.³²⁾ 무슬림 사회에 ‘세르비아 민족의 씨’를 퍼트리겠

31) James Gow, *The Serbian project and its adversaries: a strategy of war crimes*, (C. Hurst & Co. Publishers: 2003).

32) Beverly Allen, *Rape Warfare: The Hidden Genocide in Bosnia-Herzegovina and Croatia*, (Minnesota, Minneapolis·London: 1996), CID, *I Begged Them to Kill Me: Crime Against The Women of Bosnia-Her-*

다는 의도로 저질러진 일이었다.

IV. 나가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밀로셰비치의 ‘대(大)세르비아’ 프로젝트는 대실패로 끝났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크로아티아 거주 세르비아인들이 주도가 되 일으킨 분리전쟁은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 정부가 역(逆)인종청소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1994년 8월 대대적 군사작전(‘폭풍우Oluja’) 이들을 크로아티아의 영토로부터 몰아내었다. 2002년 크로아티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의 수는 4%로 나타났다.³³⁾ 1991년 인구조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였으므로, 10년 만에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의 수가 1/3로 감소한 것이다. 보스니아에서는 1995년 11월 데이튼 평화협정의 체결로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역시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무력으로 세운 반군(叛軍) 공화국 ‘레벡블리까 스프프스까(Republika Srpska)’가 종전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밀로셰비치가 원했던 데로 ‘모국 세르비아(domovina Srbija)’와의 통합은 이루지 못하였다.³⁴⁾ 앞으로도 통합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밀로셰비치가 의도치 않게 손을 대었던 ‘大(大)세르비아’ 건설은 모국 세르비아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세르비아의 영토는 전쟁시작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다. 2005년 세르비아와 ‘신(新)유고슬라비아연방’을 구성했던 형제 공화국 몬테네그로가 독립하였고, 2008년 2월엔 ‘세르비아 민족의 요람’이자, 세르비아 영토의 15%를 차지하는 코소보도 독립을 선언하였다. 1990년대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으켰던 민족주의 도미노 현상은 결국 세르비아 안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세르비아 국경선은 확대는커녕, 축소일로에 처하게 되었다. 살아생전 밀

zegovina, (Sarajevo: 2000). 우리나라에 2008년 개봉된 영화 <그르바비짜 Grbavica>를 통해 이들 강간여성 문제는 익히 알려진 바 있다.

33) “Croat census sparks ‘cleansing row’”, *BBC News*, 23 May 2002.

34) 데이튼 협정의 체결에 따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국가 2체제 상태이다. 무슬림과 크로아티아가 이끄는 ‘보스니아 연방(Bosnian Federation)’이 그 한 체제이고, ‘레벡블리까 스프프스까(Republika Srpska)’, 즉 ‘세르비아 공화국’이 또 다른 체제를 이루며, 병존 내지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 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의 꿈을 영원히 파괴해버린 ‘세르비아 역사 최대의 살인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참으로 역설적인 한 정치인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밀로셰비치 스스로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대한 주류 연구에서 보이는 ‘모든 책임의 밀로셰비치 전가 내지, ‘밀로셰비치 악마화 작업(demonization of Milosevic)’은 유고슬라비아 해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99년 이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가 전쟁 책임을 놓고 벌이는 국제형법재판소에서의 소송과 맞소송 사건이 보여주듯, 유고슬라비아 해체와 해체 전쟁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아직 까지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다.³⁵⁾ 그러므로 밀로셰비치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는 손쉬운 희생양을 찾아 역사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겠다. 더군다나 밀로셰비치에 대한 악마화 작업은 밀로셰비치로 상징되는 사회적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문제와 불만을 가리고 왜곡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20만 명의 이상이 사람이 목숨을 앗아가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난민으로 떠돌게 한 유고슬라비아해체 전쟁의 모든 책임을 밀로셰비치 한 사람 탓으로만 돌리기에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크기 때문이다. 이에 도덕적 마녀사냥 보다는 좀 더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35) Tatjana Tagirov “Srpsko-hrvatski odnosi; Tužbe, genocid i verbalne kamenice,” *Vreme*, BR 933 | 20. (Novembar 2008)

<Abstract>

Milosevic and Yugoslav War of Destruction

Oh, Seung Eun

The present paper aims to look into the role of Milosevic in the process of destruction of Yugoslavia. Milosevic has been much blamed and criticized for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and the subsequent war of Yugoslav destruction from 1991-1995. And especially the West has put much effort on demonization of Milosevic as the main culprit of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But the present paper argues that the criticism on Milosevic should be restricted to the war of destruction, not the destruction of Yugoslavia. It should be noted that Yugoslavia would have proceeded to destruction, or so called natural death, even if Milosevic was not on the power stage. First, with Tito, there was no one to place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different national groups and ethnic groups under control. Secondly the 1974 Constitution saw to it that six republics should develop into quasi state, without the right to independent diplomacy and military control. Given such conditions, Yugoslavia would have been dismantled at certain point, following the death of Tito in 1980. Therefore, the paper argues that it was the West who mixed the two developments together and putting too much blame on Milosevic, for its political convenience.

narodna21@hanmail.net

주제어: 밀로셰비치, 민족주의,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해체 전쟁,
Keywords: Slobodan Milosevic, nationalism, Yugoslavia, War of Yugoslav Destruction

■ 현장 리포트 ■

한국의 인종주의와 다문화주의 - ‘보노짓 후세인’사건과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혜실(한양대 문화인류학)

I.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의 증가와 그 자녀들의 출생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결혼과 가족, 일터, 정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인 부분에 이르는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문제를 국가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다문화주의’ 표방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일명 ‘보노짓 후세인 사건’¹⁾으로 알려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에 이른다. 그러한 인종주의와 관련된 혐오나 차별행위는 사이버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서부터, 단순한 개인적 댓글달기뿐만 아니라, 일터와 시장, 거리, 지하철과 같이 이주자의 삶이 영위되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해 내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이주자는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왕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등의 낙인(stigma)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분리적인 차별 대상으로 제도화 되어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prejudice)이 악순환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이주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다문화주의의 외피를 입고 있다고 해도 현실은 법과 제도,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젠더와 민족주의가 연결된 인종주의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다른 말

1)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2009년 10월16일 레이디경향 노정연기자 기사 참조바람

로 하자면 결국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시민권(Citizenship)과 인권(Human right)의 문제가 젠더와 민족주의가 중첩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보노짓 후세인’ 사건이었으며, 그러한 사건을 출발로 해서 2009년에 결성된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한국사회의 인종주의 문제와 다문화주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법무부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체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체류자격(비자)을 부여한다.²⁾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이러한 체류자격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거나(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에 부여된 기간을 넘어 체류할 경우 미등록이주자인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 범주에서 소위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이주자의 경우 그들은 한국사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침해라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렵다. 즉 폭력을 당해도, 월급이 밀려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들은 그것을 사건화 하지 못한다. 즉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문제를 사법적 처리를 위한 첫 단계로서 경찰로 가져가는 순간 미등록임이 밝혀지면 추방을 당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은 해결을 바랄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 이주자는 반드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간접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노짓 후세인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그는 S대학의 연구교수였다. 그가 가진 체류신분은 자신이 당한 인종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신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이주자들의 체류신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주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코 인종차별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발생한 인종차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igrantion.go.kr>

별의 문제를 가지화하고자 할 때, 제도적인 장벽에 의해 해결자체가 어렵거나, 설사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어도 한국인들의 인식 속에는 늘 이주자와 관련해서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기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 다음 사례는 최근에 만난 난민 여성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막 도는 거예요. 평소에는 2천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거리인데 아저씨가 미터기와 상관없이 7천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보고 못주겠다고 하니 경찰을 부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G-1 있으니깐, 그래서 경찰 부르라고 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보니까 아저씨가 잘못 한 거라고 해서 4천원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아저씨 생각에 내가 불법사람일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찰 불러서 나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 이제 걸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죠.(버지니아, 30대)

이는 흔히 일반 한국인들도 겪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이나 바가지요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요금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이 사례에서 더욱 민감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단지 요금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그것이 택시에 탄 난민여성이 백인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온 콩고사람이었기에 보이는 피부색이라는 측면과 그녀의 외모가 곧 불법체류자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연상되었다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공권력인 경찰을 불러서 위협을 가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인종차별은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주민들을 차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상의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인종적 차별행위로 이어지도록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지점이다. 즉 제도적인 인종주의는 일상의 인종차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보노짖 후세인’의 사건도 버스 안이라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일어났으며, 그 사건의 배경에는 피해자 당사자의 외모가 인도 출신으로서 다른 이주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있을 뿐 아니라, 그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단순히 이방인이어서 낯설음으로 그를 다르게 바라본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쏟아진 폭언의 수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즉 그를 이주노동자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발화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인식의 문제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면서 한국 사람의 인식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노짓 후세인’과 가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경찰이 가진 중재의 권한이 의사소통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동행했던 한국여성의 도움 없이 이러한 사건이 가시화되고 발언될 수 있었을 것인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최근 2010년 4월에도 있었으나 가시화되지 못한 적이 있다.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으로 접수 되었지만, 가시화 시켜낼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의 요약은 지하철 안에서 한 40대 가량의 남성이 태국 유학생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거칠게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지하철 안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노숙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로 끝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해 가해자 남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불쾌감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고,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날의 사건에 개입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조차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또한 사건화 할 근거가 너무 부족하여 이것을 가시화하지 못했다. 이렇듯 인종과 관련한 차별이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 저항할 목소리와 문제로서 가시화할 수 있는 목소리는 제한 된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자신이 문제를 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의 이주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 한국사회의 이주자들의 체류자격이라는 것이 정치적발언권 및 사회, 경제적, 문화권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타자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이다.

III. 타자의 권리 : 시민권(Citizenship)과 인권(Human-right)

벤하비브(Sayla Benhabib)는 『타자의 권리(*The Right of Others*)』 책의 서문 앞장에 “어떤 인간도 비합법적이지 않다.”라는 문구를 뉴욕 퀸즈

의 2003년 「이주노동자자유연대」로부터 인용하며 책을 시작한다. 이 문구를 통해 정치적 성원권(Political Membership)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이 현존하는 정치제도에 외국인과 이방인, 이민자, 신입자, 난민, 망명객 등의 일국으로의 편입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권리와 정체성을 재의미화하며 국민을 한편으로는 운명과 기억 그리고 도덕적 공감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인종적 국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인종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가운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 합법화된 전체로서의 국민일 수도 있다면서 근대 민족국가를 이루는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성은 이 두 가지가 타협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말한다.³⁾ 과연 한국인에게 있어서 ‘국민’이란 개념은 무엇일까? 신진옥은 오늘날 한국에서 시민과 국민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⁴⁾ 현재의 정책을 보았을 때 국민은 엄연히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면 그 외 사람들과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국민과 시민이 비슷한 개념이라면 시민권의 개념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터너는 시민의 의미를 첫째 도시의 거주자(inhabitant), 두 번째는 거주자(inhabitant) 혹은 점유자(occupant)로서 거류민(denizen)과 동일시하고 세 번째는 국가의 성원으로 본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경제적 시장의 발달과 교환관계들의 확산과 연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교환관계들의 확산을 통해 법적 피지배자의 귀속적 특성을 놓고 차별하지 않는 형식적·합리적 법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1997). 결국 세계화된 전지구적 상황에서 이주자의 유입은 일국의 이익만을 위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교환관계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교환관계이기에 귀속적 특성에 따른 차별을 없앨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지구화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에게 제한된 권리로서 시민권이 아닌 너스름이 말한 ‘세계시민’⁵⁾이자 일국의 거주자로서의 ‘시민’에 대해 고

3) Seyla Benhabib, *The Rights of others: aliens, residents and citizens*,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8)

4) 신진옥, 『시민』 (서울: 책세상, 2008)

5) Martha Craven Nussbaum and Joshua Cohen, *For love of country: debating the limits of patriotism*,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한계 논쟁』 (서울: 삼인, 2003)

민해박야 하는 때인 것이다. 그것이 체류자격에 따른 불평등이 인권을 침해하며 인종차별이 되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노짓 후세인’은 인도로 돌아갔다. 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그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인종주의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다.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것처럼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체류기간을 어길 시에는 소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계약 기간과 달리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자신의 국가체제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 이주해온 사람들과 한국인 배우자를 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체류기간이 민족적 혈연관계에 의해 연장되며 국적취득도 가능해진다. 특히 결혼이민자에게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더 빨리 주어진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사회의 혈연집단인 가족으로의 편입과 자녀출산이라는 민족적 재생산을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더욱 쉬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장결혼이라는 의심과 국적취득의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없는 한국사회에서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적취득의 자격은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혈통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자격은 체류자격의 측면에서 같은 이주노동자일지라도 외국인과 민족이라는 구분을 통해 E-9(고용허가제)과 H-2(재외동포)로 구별하여 대우하는 출입국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차별로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설사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묶어내는 민족적 공감이라는 것이 강제된 기억을 불러낸 것이며, 강제된 기억을 통해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⁶⁾임을 알고 있기에 ‘단일민족신화’를 깨뜨려 다문화사회의 걸림돌인 민족의식을 바꾸자는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이미 제도화된 민족주의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민족과 민족이 아닌 사람으로 타자인 이주자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곧 제도적 포섭과 배제라는 구조적 차별을 공고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이주자이자 소수자로 오랫동안 살아 온 화교들과 최근 이주해 온 이주자들을 비교해 볼 때 국가 밖으로 부

6) Benedict R.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성찰』 (과주: 나남출판, 2004)

터 이주한 외부자라는 면에서 차별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결혼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조선족이나 사할린동포 등과 같이 이주자이지만 민족으로 호명되어 다른 신분적 지위를 얻어가는 과정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민족주의가 인종주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⁷⁾ 즉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체류자격의 분류와 체류자격의 부여는 은폐된 인종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류자격에 따라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적을 가지는 것과 인권의 문제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타자의 권리이다. 체류자격조차 없는 미등록 신분인 이주자(불법체류자와 무국적자)와 제한된 체류권을 가진 등록 이주민(합법체류자) 그리고 국적 취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자(결혼이민자와 동포)와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지만 국적부여는 불가능한 이주자(화교 등)의 시민권 행사와 인권보장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체류자격과 상관없는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지만, 시민권이라는 보장 없이 보편적 인권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민권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주자의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 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현재 안산시만 해도 ‘외국인 주민 조례’라는 법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용역을 수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십분 활용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의 3만이 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뜻 깊은 의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범주의 문제이다. 이는 안산시 조례제정 과정 중에서도 드러난 문제인 것인데 과연 ‘외국인’이란 누구인가이다. 그들의 프로젝트 공모에 보면 외국인의 범주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 중국동포, 기타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중에 중국동포를 외국인

7) Bryan S. Turner,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 서용석, 박철현 역, 『시민권과 자본주의』 (서울: 일신사, 1997)

으로 보는 것과 결혼이민자 중 귀화 한 사람들도 여전히 외국인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외국국적이라는 것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들 까지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는 한국사회의 시각과 이주의 관점에서 이주자들을 조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가 귀화라는 신분적 취득을 통해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명시되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안산의 거주하는 주민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귀화는 했으나 G-20유치에 따른 외국인 단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주자들은 주민등록상 자신이 귀화한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인종적으로 이주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인종적 구별로서 외국인을 가려내고 있기에, 그러한 단속의 기준으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파키스탄 남성과 재혼한 케이스인 한 여성은 남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초등학교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자신이 키운 아들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 하였다.

어느 날 아이가 원곡초등학교 옆을 걷고 있는 출입국사람이 와서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크니까 불법체류 단속한다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 한국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자 풀어 주었다는 거예요.(아이샤 : 파키스탄이름, 30대)

이와 같은 단속상의 무분별함은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단속기간이 되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은 국적이나 체류자격보다는 인종적 구분을 통해 단속을 하려는 태도로서 이것이야말로 인종차별 그 자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백인의 불법체류단속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과거 2003년도에 영어 스터디를 위해 초빙되었던 캐나다 여성은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당당히 밝혔다. 체류기간이 훨씬 넘은 상황에서 여전히 영어교사를 하고 있었고, 집은 강남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며 한 번도 단속을 경험한 일이 없었다. 체류자격이 분명히 있어도 영어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는 다른 이주자들의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서

인터뷰했던 난민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백인 중에서 블론디 여성은 1순위고, 그 다음은 머리카락이 브라운 블랙 팬찮아요. 그 다음은 백인 남성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인인데 조금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리핀 팬찮아요. 그 다음 우리처럼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만약에 필리핀 여자 영어 나보다 못해도 그 여자 팬찮아요. 나는 블랙 때문에 될 수 없어요. 나 돈도 적게 받아요. 백인 아니니까... (버지니아, 30대)

이러한 채용의 순위에 따라 임금의 순위도 매겨진다. 따라서 인종적 서열은 경제적 서열을 만든다. 그런가하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백인에게의 자유로운 사회가 한국사회이다. 그에 비해서 비백인 이주자는 합당한 체류자격이 있어도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는 민족주의와 시민권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상호결정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실현되지 못할 허구적 이념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전체 이주자 중 10%인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10%를 위한 정책조차도 사실상 인종적 서열위에 근거해 있다면 무슨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표1) 외국인 체류현황(2009년말 기준)

총 외국인 1,168,477 (100%)							
총 이주 노동자 (690,611) (59.10%)				결혼이민, 유학, 기타 (477,866) (40.90%)			
전문인력	비전문 (461,203) (39.47%)		단기취업 등	미등록	결혼이민	유학	기타
	일반	동포					
35,536 (3.04%)	158,198 (13.54%)	303,005 (25.93%)	15,917 (1.36%)	177,955 (15.23%)	125,087 (10.70%)	80,985 (6.93%)	271,794 (23.26%)

출처: 2010년 외국인이주 노동자협의회 정책토론회

IV. 젠더(Gender)와 혼혈(Half-blood / Interracial)

‘보노깃 후세인’사건은 본인 혼자만 피해를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다. 앞

서 이야기 했듯이 동행한 한국여성이 있었다. 동행한 한국여성이 보노짓 후세인을 단순히 통역하고 돕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동행한 한국 여성을 향해 동시에 폭언과 성폭행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망은 남성인 이주자 ‘보노짓 후세인’에 맞추어서 이슈화되었고 한국여성의 인종주의와 결부된 젠더의 문제는 크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 여성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사건이 있고 벌써 2개월째이지만 아직도 미디어에서 (많은 경우 따라잡기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기사 봤어요” 하고 다가오면 반갑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어 오는 대부분의 코멘트는 “보노짓 씨 힘들었겠어요” 입니다. 제가 “저도 힘들었고 아직도 힘들어요”라고 대답하면 “친구가 그렇게 됐으니 당연히 그렇겠죠”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제 자신을 성-인종차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싫지만 여기서 필요하군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기자, 동료, 가족을 불문하고)은 그 경험과 해석을 어려워합니다.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좋으냐”라는 말,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공권력의 무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보기를 경험을 해 본다면 이해가 더 쉬울까요? 보노짓에 대한 “인종차별”은 알아도 ‘성-인종차별’은 잘 받아들여지지, 이슈화되지 않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저도 박씨에 대한 고소인이자 부친중부경찰서 및 계남지구대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인이라고 이야기 하면 전혀 몰랐다가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냐고 묻기까지 합니다.(중략)

위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정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국내외의 비슷한 케이스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를 내고, 기지촌 여성 및 “혼혈인” 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척 문제로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건의 중요성과 행동의 의의가 반쪽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쓰립니다.>(익명요구, 20대)

이러한 그녀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인인 이주자가 한국의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가진 인종주의 문제에 한국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상황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좋으냐”라는 언

설에서 드러나듯이 조선년으로 불렸다는 것은 이미 민족과 젠더가 중첩되어 새까만 자식이라는 인종주의와 결부되어 나타남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기지촌여성의 경험과 그녀들에 대한 호칭이었던 “양공주”라는 명명과 무관하지 않은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것이며,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처럼 이주노동자남성과 한국여성들로 결합된 가족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이주노동자 남성의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지위와 외모에서 드러나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인종의 이주자와 결혼했던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연애를 하거나,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 여성들이 민족공동체를 재생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망각했기에 문제적이며, 민족의 순혈주의를 위협하기에 문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서구남성에게 몸을 팔던 여자들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서 ‘양공주’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투영하여, 국내적·민족적 가부장제와 국외적 서구적 가부장제 양자의 희생자였던 여성을 성노동자계급으로서, ‘양공주’라는 비난의 시선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게 만들어 온 것이다.⁸⁾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에 대한 담론은 이주노동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자이자 국적을 위해 희생되고 이용되는 피해자 한국여성이며, 그들이 국적을 취득한 순간 노동자 계급을 뛰어 넘는데 이용되는 발판일 뿐 이라고 말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몸을 대신해서 민족공동체의 출산의 의무를 짊어진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지원은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가족지원에 비해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순혈주의에 대한 위협은 사라진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갑자기 혼혈아나 튀기가 아닌 ‘다문화가정자녀’라는 말로 순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여성은 소위 ‘애국자’가 된다. 이는 거창에서 필드조사를 할 때 동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다.

요즘 한국여자들은 못써. 시집도 안가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거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온 여자들은 애를 막 둘 셋씩 낳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애국자지.(한국남성, 70대)

8) Elaine H. Kim, 최정무 (ed.) *Dangerous Women*, 박은미 역,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위험한 여성』 (서울:삼인, 2001)

농촌의 노인인구 증가,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한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며 농촌에서 아이들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결혼이민자여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민족적 재생산의 의무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몸은 사실상 ‘출산의 도구’이자 고령화된 농촌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민자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평가가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첫 번째로 피부색과 같은 외모적인 이유로 인한 왕따의 문제를 화두로 삼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유입 비율을 보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부모의 비율이 60% 이상이며, 그 외 몽골이나 베트남 출신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 출신의 자녀들이 외모적으로 한국인과 구별되냐 하면 다문화가족협회의 회원 가족들인 다마얀이나 하와까마이를 봐도 그 비율은 적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차별에 해당하는 피부색에 의한 왕따의 문제는 문제보다 현상을 과도하게 보도하는 미디어의 책임이 더 크다. 사실 왕따의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의 학교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고를 키우지 못하는 학교의 인권부재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할 수 있기에 이것이 마치 전체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반드시 겪는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능력의 저하로서 늘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중 강조되는 것이 부모가 외국인이라서 한국말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학습능력이란 얼마나 좋은 학원에 비싼 돈을 들이는가와 좋은 과외 선생을 어떻게 아이에게 붙여 주었는가와 직결되어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즉 학습능력이란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며, 엘리트 계층들이 공유하고 정보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일 뿐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교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그 부모가 외국인 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지점이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자녀의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교과부나 일부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멘토링 교육을 고안해 내었다. 여러 NGO에서 결혼이민자여성들의 모국어를 통한 자녀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도외시 되었던 문제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

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는 언어교육으로 이중언어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언어란 일상의 생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쉽게 적응되는 것이지만, 실상 한국사회가 영어를 우선시 하고 있고, 이주자들 스스로도 영어의 가치가 한국에서 얼마나 우월한가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기에 모국어 보다는 영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엄마들도 따갈로어 보다는 영어를 교육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가족내 관계에서도 베트남어나 몽골어 등의 사용에 대해 여전히 꺼리고 있고, 그러한 언어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부모나 남편의 태도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중언어 사용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존중과 포용 없이는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항상 결혼이민자여성의 모성이 저평가되는 지점으로서 양육능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이다. 안산의 글로벌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한 실무자는 “이유식을 모른다”, “아이들 밥을 먹이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혼이민자여성들이 자신의 모국의 양육방식을 실천하고 싶어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니 한국식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 정상적 교육이라는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이 양육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에서 오는 편견일 수 있다. 그러한 편견은 그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태도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 60년대부터 7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혼식과 빵 그리고 우유를 권장하는 식단을 권유받은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그 정상성의 기준은 서구적 식단이였다. 그들의 육체적 건강성이 정상으로 표상되고 한국인의 몸은 비정상인 것으로 규정되면 서구의 기준에 맞춰 우리의 몸을 성장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던 시절이였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린 다시 결혼이주여성들의 신체를 한국인의 표준적인 몸과 체질량이라는 과학적 기준을 들어 평가하면서 그녀들의 영양섭취와 자녀의 영양섭취를 걱정하고 있다.⁹⁾ 이젠 서구를 따라잡은 우리의 식문화와 건강한 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이다. 과연 우리식의 식단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결혼이민자여성이 낳은 자녀는 한민족의 핏줄로서 한국인으

9) 2010년 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분과 여성의 삶과 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식문화 적응』 신원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발표

로 체질화하도록 키워야할 민족적 사명이라도 있는 것인가?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여성의 몸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몸 그리고 그 자녀는 인종주의와 성 그리고 계급적 지위와 민족주의가 결부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가 이론이란 경험의 추출이며 개인적인 것의 심화여야 하며, 최선의 이론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성차별주의자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역사와 지점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부담 혹은 특권에 의해 분명히 규정됨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차이와 권력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론화하며 이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가 인종 · 계급 · 젠더 · 국가 · 섹슈얼리티 · 식민주의를 정제되고 체현된 범주의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즉 우리의 생활과 근본적으로 뒤얽힌 역사와 경험 속에서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¹⁰⁾

V. 나가는 말

2009년 보노짯 후세인 스스로는 자신이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되리라고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올 때 미처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¹¹⁾ 그리고 그

10) Chandra Talpade Mohanty,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문현아 역, 『경계 없는 페미니즘』(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5)

11) “지구화와 함께, 우리는 또한 국가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이주가 여러 층위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목도해 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종적이고 종족적인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들이 또한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시아의 미디어들은 대개 서구 국가들에서 인종적으로 학대당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해 보도한다. 가장 최근의 극적인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호주에서 인도 학생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인종주의적 폭력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주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도에 있는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건 한국이나 일본처럼 발달된 아시아 경제 내에서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건, 우리는 손쉽게 이것을 환경으로 밀어놓거나 기껏해야 알기에는 곱씹어준 것으로 여긴다. (중략)인도와 한국 같은 사회는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다.(중략)3년전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나 또한 내가 인종주의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나 또한 비백인 제3세계 국가에서 비록 경제적으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비백인 아시아 국가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들(그들 대부분은 공장 노동에 종사한다)은 열등한 존재로 경멸당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중략)“검둥이 자식” “아랍” “냄새나” 등등의 고탈소리를 듣는다.(후략)”

사건을 가시화하고 이슈화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성(gender)차별과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발단이 되었으며 그 시작의 중요한 밑거름이었음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차별들-임금차별, 근로조건의 차별, 한국말 습득의 강제 이수(사회통합이수제), 체류자격의 차별, 공권력의 부당한 차별 등등-이 무수히 있어 있었지만 그것을 그저 차별이라는 말로 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명시화해주었다. 즉 ‘인종차별’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외국인남성과 결부되는 한국여성과 한국인남성의 배우자로 들어오게 된 그 자체가 이미 낙인이 되어버린 결혼이민자여성의 문제가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민족과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을 해석해 낼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10월22일에는 이미 뿌리내려버린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토론회에서 당사자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이야기들의 결론은 무딘 감수성과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상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이주자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이론적 뒷받침을 해줄 학자들과 현장의 사례를 모아 줄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의 틀 속에서 글을 쓰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모아진 힘으로 이주자들(migrant)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 그리고 일상의 삶을 변화시켜 내야 할 것이다.

hyesil337@hotmail.com

2009년 12월, 보도짓 후세인 보내온 메일로 후에 『한겨레신문』에 게재됨.

■ 서평 ■

『원수들, 사랑 이야기』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 지음, 열린책들, 2008년

이경일(인하대학교)

역설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제목(*Enemies, A Love Story*)을 단 이 소설은 우리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7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Issac Bashevis Singer)의 작품이다. 평생 동안 수십 편에 이르는 소설과 동화 등의 다작을 자랑하는 싱어의 작품들 가운데 이 소설이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태어난 땅 폴란드를 떠난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으로서의 혼돈스러운 삶과 내면세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소수민족인 유대인이라는 태생적 정체성과 이주민으로서의 뿌리 뽑힌 처지를 한 몸에 지닌 싱어의 인생 역정은 그 자체로 특히나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902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싱어는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서 1935년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 후로는 자신에게 덧대어진 미국 시민으로서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1991년까지 길고도 문학적으로 풍성한 생애를 살았다. 그의 문학적 여정 역시 크게 폴란드 시기와 미국 시기로 나뉘질 수 있으며, 이 시기 구분으로 싱어의 문학적 특성이 동유럽인들과 비교되는 유대인들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와 몰두에서 시작해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한층 더 독특한 경험 세계가 겹쳐 쌓였음을 알 수 있다.

『원수들, 사랑 이야기』 역시 싱어가 고향을 떠나 미국에 이주한 지

40년 가까이 지난 1972년에 출간된 작품임에도 여전히 중심인물과 주변 세계는 모두 유대인들로 채워져 있다. 더구나 나치의 집권 이후 이주한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종교와 현실이라는 대립 내지 교차의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갈등을 극대화시켜 드러내고 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도 이들이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던 시기인 1940년대 말엽이며, 뉴욕에 거주하는 독특한 처지에 놓인 한 유대인 남성을 주인공 삼아 그의 삶에 드리워진 애환과 부조리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씩씩하게 그리고 있다. 이 모두가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주의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자전적 소설과 집단 서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허구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주인공인 헤르만 브로테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으로 랍비의 대필 작가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프로필 가운데 매우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단한 삶의 와중에도 의도하지 않게 두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애인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결혼한 지금의 아내는 이전에 폴란드에서 자신의 하녀로 일했던 시골처녀 야드비가였다. 헤르만은 나치의 손에 첫 부인인 타마라와 아이들을 잃은 상태였고, 나치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야드비가와 미국으로 건너온 후 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보은의 표시에 불과했으며, 정서적·지적 갈등에 목말랐던 헤르만은 자신과 비슷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마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타마라가 나타나게 된 상황이 바로 헤르만이 예기치 않게 ‘능력남’에 이르게 된 전말이다.

제목의 일부가 ‘사랑 이야기’이듯이, 이상의 구도는 이야기를 헤르만과 그의 여인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이끌고 있으며, 여기서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갈등 요소들의 분출이 바로 전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세 여자 모두와 얽힌 가장 복잡한 관계 선상에 놓인 헤르만의 처신은 이야기의 축이자 실마리이다. 헤르만은 몹시도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려 하지 않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려 하지 않는, 순간순간의 사정에 자신을 맡긴 채 떠밀려가는 존재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마땅한 사랑이

그에게는 늘 자기변명이 필요한 대상이며 자기 자신을 속박지우는 굴레가 되곤 한다. 그런 무책임함과 의지박약 속에서 헤르만은 매 순간 자기 보호와 자기 파괴의 양극단을 오고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으로 얼룩진 그의 하루하루는 그를 옥죄어 가고 마침내 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대비하고 싶지는 않은 파멸의 때를 맞게 된다. 마샤와 동반자살을 약속하지만 마샤만이 자살하도록 방치한 후, 헤르만이 종적을 감추고 도피함으로써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는 소설의 결말은 헤르만이 너무나도 바라마지 않았을, 아니 그에게 너무나도 걸맞은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랑에 대해서 달콤함보다는 피곤함을 안기는 감정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심지어 믿음 어린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헤르만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의 여자들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 소설은 연애소설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헤르만의 무기력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세상만사와 인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근저에는 바로 신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목도하고 체험한 헤르만은 자신이 젊은 날에 심취했던 철학에 대해서 진보라는 이름의 헛된 약속을 내놓는다고 혐오감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신이 방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기대기 마련인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는 자기의 외부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넘어서 헤르만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자포자기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원수들, 사랑 이야기』를 관통하는 테마로서 떠올리는 두 개의 단어는 유대인과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비단 주인공 헤르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홀로코스트가 남긴 트라우마가 현실의 그늘처럼 늘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리고 새로이 이주한 땅 미국에서도 그들은 과거의 환영 속에 정신적·종교적 아노미 상태로 삶을 살아간다. 나아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노미의 또 다른 얼굴인 회의감이 개인 차원에서는 절대자인 신과 삶의 주체인 자기 자신으로 외화된다는 점에서 유대인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고뇌로 발전할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유대인과 개인이라는 두 방향의 접근은 싱어의 문학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인 듯싶다. “폴란드계 유대인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상황을 이야기한 감동적인 문학”이라는 노벨상 선정 이유는 바로 자신과 자기 민족의 경험에서 비롯된 성찰과 문제제기를 인류가 비판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한 그의 노력을 높이 산 것이다.

『원수들, 사랑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싱어에게서 자기 민족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은 그가 늘 천착했던 소재였으며 또한 유대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물음과 해답 찾기는 그의 끊임없는 고민거리였다. 유대인 박해가 나치 독일이 인종적 기준에 따라 유대인을 집단적으로 격리 혹은 추방, 최종적으로 학살로 내몬 사건이라고 말해지기는 하지만, 누가 인간의 광기가 불러온 최악의 재난의 희생자인 유대인인가라는 물음에는 생각의 템포를 한 박자 늦출 필요가 있다. 언뜻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종교적으로 혹은 혈연적으로 확고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리아인/유대인의 강고한 이분법을 특징으로 하는 나치의 제국국적법 시행령이 보여주듯이 훨씬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더구나 나치가 채택한 유대인의 범주가 타자의 눈으로 외부에서 규정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정체성의 내용이 타자/자아의 구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피상성과 공허함 속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적어도 싱어에게서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은 그들의 문화, 구체적으로는 언어와 종교로서 내면화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 그가 오랜 미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작품을 동유럽 유대인들의 언어인 이디시(Yiddish)어로 쓰기를 고집했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소수 언어가 지배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동유럽인들의 한 귀퉁이에서 힘겹게 살아온 망명자들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혈통적·종족적 일체감을 유지하고 확인하는 매개이자 정체성 그 자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공기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반면, 유대인들에게 이디시어는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구사 행위 자체가 바로 타자와 대면해서 행하는

자신들의 존재 실천이었던 셈이다. 싱어의 ‘자신의 언어’를 간수하고 지키려는 노력 역시, 그의 말을 빌자면 “종교적 환희, 삶에 대한 욕구,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인내력, 그리고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는 마음 등을 발견하려는 행동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 노력은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는 순간에도,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이디시어로 소감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뚜렷이 밝히고자 했던 일화로도 이어졌다.

이렇듯 ‘겨레말’에 대한 천착이 자기 정체성 발현의 한 방식이라면, 내용으로서의 문학에서 싱어가 유대인을 규정하고자 했던 기제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싱어 자신은 늘 무신론자를 자처했지만, 그의 정신적 뿌리가 유대교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자신도 부정하지 않았다. 어찌면 그가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연이 인간에게 허락하는 모든 즐거움과 능력과 지식을 고스란히 향유하면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길”에 대한 믿음을 지닌다는 점에서, 싱어의 종교적 지향은 실은 훨씬 원대하고 근본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종교를 드러내는 방식은 방향 제시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윤리와 신앙에 대한 문제제기와 회의를 통해서이다. 이 소설에서도 유대교의 관습과 신앙에 대한 불신에 가득한 헤르만의 태도는 종교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종교에 대한 끊임없는 되물음과 되새김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는 종교적 윤리와 사회의식, 그리고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헤르만은 홀로코스트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참극을 겪고서 환멸과 체념으로 가득한 인물의 무기력한 갈등을 잘 보여준다. 이렇듯 싱어가 그려내는 유대인은 집단으로서가 아닌 유대인 개인, 특히나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투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는 유대민족의 틀을 벗어나 인류 전체에 호소하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 『원수들, 사랑 이야기』의 기조는 분명 싱어 자신이 견지하는 비관주의를 있는 그대로 재현해 냈다고 할 수 있다. 한데, 그의 비관주의를 잘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치유 불가능한 뿌리 깊은 염세라기보다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의 경험이 제언하는 신중한 관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은

무작정 퇴폐적이라기보다는 만연한 불의와 잔인성의 심연 속에서도 사랑의 힘을 찾고자 하는 더없이 지난한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은 타마라가 「다시 태어난다면 생각해보죠. 헤르만과 재혼하는 거라면요」라는 이 소설의 마지막 글귀는 너무도 담백하지만 쉽사리 변치 않고 언제까지고 기다리는 데에 익숙한 사랑에 대한 싱어의 자기 고백으로 들린다.

leoandrius@yahoo.com

■ 서평 ■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Peter Sing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Second Edition

Kyung-Hwan Oh

현대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의 소통 노력의 부재일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철학적인 언어로 소화해 내는 철학 본래의 사명은 철학이 대학의 학문 분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 왔다.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아마도 이런 조류의 가장 중요한 예외일 것이다. 신 공리주의(utilitarianism), 혹은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논한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75)이나 낙태 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가장 명징한 분석인 『팽창하는 원: 윤리와 사회생물학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1981)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생명윤리에서 세계 빈곤의 문제는 최근의 저서 『당신이 살릴 수 있는 생명 The Life You Can Save: Acting now to end world poverty』(2009)에서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처음 출간되어 2004년에 증보 출판된 『하나의 세계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에서 싱어는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세계에 적합한 글로벌한 윤리적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싱어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 이상 국민국가에 기초한 윤리적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관된 세계 속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싱어는 지구화와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싱어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전 지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준다”고 서술한다. 기후 변화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사정은 흥미로운 철학적 상황을 유발한다. 특정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실제로 감내하는 것은 행위자뿐이 아니라 인간 전체이며 공해 유발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공해 유발 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료 절감 차량과 연비 높은 차량 사이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경제적 이득과는 관계없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선택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문제의식에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전 지구적인 시점으로 본다면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결국 공해 유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싱어가 탄소 배출권의 거래와 같이 이미 많은 논의가 진척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실망스럽지만 그가 제기하는 시점의 이동이 가져오는 도덕적 내용의 변화는 시사적이다.

싱어가 다음으로 접근하는 주제는 WTO를 비롯한 세계 무역기구이다. 싱어는 이들이 경제적 이득을 다른 어떤 가치(환경, 동물권, 심지어 인권)보다 우선시하며, 국가 주권을 잠식하며, 비민주적이며 불평등을 주장한다고 본다. 무역 자체를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WTO와 같은 조직은 상품이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따라서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인권을 해치는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이 새로운 전 지구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의 국가 주권과 전 지구적 경제 체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같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주권의 설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경제체제가 어떻게 국가 주권을 잠식하는지, 또한 그런 상황을 전 지구적 윤리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의 비민주성에 대한 주장은 윤리학적 입장에서 흥미롭다. 과연 지구화 정책의 다양한 결과를 '모든' 세계인이 동일한 수준으로 체험하는가? 만약 이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근원적인 비민주성을 고려한다 해도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을까? 국민국가를 제외한 대표성의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세계가 직면한 빈곤의 문제와 지구화가 전 지구적 빈곤을 재생산하는 현실 역시 이 전 세계 경제체제의 비민주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터이다.

싱어는 이어서 지구화로 복잡해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의 탐색에 나선다. 먼저 싱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당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이런 종류의 개입은 초국가적 조직(대표적으로 민주화된 U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싱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국가(아마도 미국)의 전 지구적이며 윤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책 초판의 출간 연도가 2002년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이런 기대는 곧 배반 당할 종류의 것이었다. 물론 싱어가 국가 주권의 미래에 대해서도 덕적인 환상만을 품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는 일관되게 국가가 민족주의적 틀을 벗어나 전 지구적 윤리의 주체로 국가 주권이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싱어는 윤리적 입장에서 국가만이 그런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할 당위도, 현실적인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싱어는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국제 원조의 배분을 검증한다. 먼저 우리는 일 달러가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전제를 이런 상황에 적용한다면 대단위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공리주의적 체계를 한 국가 내부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입장으로 확장한다면 극빈국에 대한 원조는 공리주의적 당위가 된다. 싱어는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양적 공리주의를 민주적이며 전지구적인 방식으로 되살리고 있다. 결국 UN이나 WTO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가 전세계의 민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을 허용한다면 이들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싱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개인 행위의 차원에서 역시 이런 공리주의적인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싱어는 분명히 충분히 '윤리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서 싱어는 이런 종류의 윤리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가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행위 차원으로 이 윤리성을 축소해 보자. 어떤 개인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기준은 자신의 이웃이 될

것이다. 이웃의 개념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싱어의 시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민국가와 같은 제도적인 틀뿐 아니라 시민의식의 근원적인 전제를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싱어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가 파악하고 있는 지구화의 양상이다. 그의 지구화는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교류나 경제적 관계의 증대이다. 지구화라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단순한 해답을 내어 놓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삶의 전 지구적 양상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행위와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화의 문제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요원해 보인다.

싱어의 책은 분명 의미있는 시도이다. 지구화되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윤리적인 시점-그것이 반드시 공리주의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을 지구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주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파악한 지구화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확장과 교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지구화의 복잡한 양상과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나 새로운 윤리의 기초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khmithranthir@gmail.com

■ 영화평 ■

지구화와 바이오크로싱 : 영화 <구글 베이비 Google Baby>

염운옥(이화여자대학교)

“당신의 배아가 페트리접시에서 자라는 동안 당신은 달빛에 빛나는 타지마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 별 다섯 개짜리 호텔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인도 뭍마이의 불임클리닉 광고”¹⁾

I.

가속화되는 지구화(globalization)는 상품과 자본과 인간의 이동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에는 원래 국경이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좁아진 세계 덕에 사람들은 국가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티의 연결망을 따라 글로벌 엘리트가 이동하고, 이주노동자는 세계를 떠돌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을 위해 1951년에 설립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현재 출생지를 떠나 살고 있는 인구는 약 1억 9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3%이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인구 35명중 1명이 이주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의 프롤레타리아화(proletarianization of migration)’라고 일컬을 만큼 대량 이민과 이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다.

이동하는 것은 성인만이 아니다. 제3세계의 버려진 아기들은

1) 백영경·박연규 편, 『프랑켄슈타인의 일상: 생명공학시대의 건강과 의료』(서울: 도서출판 밭, 2008), p.83.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 입양산업을 통해 제1세계로 이동한다. 아기들뿐만 아니라 인구 재생산의 수단과 재료가 되는 자궁, 정자, 난자, 배아와 같은 부품화된 신체 역시 이동하고 있다. 난자 기증과 대리모 행위가 아이가 없는 커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타적 행위라는 명분은 금전적 거래 앞에 매우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주 노동자가 생산을 위한 노동력 상품으로서 종종 사람이 아니라 현대판 노예로 여겨지는 것처럼, 대리모의 자궁, 난자와 정자 역시 착취의 대상이 된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본주의 아래서, 시장에서의 자유와 선택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앞에서 신체의 일부가 상품이 되는 건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장기매매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자나 난자쯤이야!

생식 기관의 전지구적 이동과 생식보조기술(ART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의 지구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아디티야 바라드와이(Aditya Bharadwaj)는 ‘바이오크로싱(biocrossing)’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했다. 바라드와이의 정의에 따르면 바이오크로싱이란 “생물학과 기계 사이, 지정학적, 상업적, 윤리적, 도덕적 경계들 간을 넘나들고 가로질러, 인간 신체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분리와 결합 운동”²⁾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발달한 생식보조기술을 이용해 생물학적 아이를 갖기 위해 국가 경계를 넘어 수천 킬로를 여행하는 남녀들의 이동과 이 이동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설명하는데 이 보다 더 적합한 개념은 없을 것이다.

II.

<구글 베이비>는 지구화 시대 바이오크로싱의 현주소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영화는 고발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준다. 담백하고 냉랭한 시선으로 인해 <구글

2) Aditya Bharadwaj, “Biosociality and Biocrossings: Encounters with Assisted Conception and Embryonic Stem Cells in India”, S. Gibbobs & C. Novak eds., *Biosocialities, Genetics and the Social Sciences-Making Biologies and Identities* (London: Routledge, 2008), p.103. 초츠나 A. 굽타, 「전지구화된 세계에서 난자 기증자들과 대리모들 그리고 생식 시장」,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지구지역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p.7에서 재인용.

베이비>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소설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나 영화 <아일랜드 Island> 같은 공상과학픽션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담았다는 현실성은 더욱 부각된다.

감독 지피 브랜드 프랭크(Zippi Brand Frank)는 1970년생으로 이스라엘 출생이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예술을,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 법률과 저널리즘을 전공한 후 니이만 연구기금에 선발되어 하버드대학에서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현재 감독이자 프로듀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몇 편 연출했으며 <구글 베이비>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구글 베이비>는 2010년 4월 제12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지구지역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에서 특별 상영되었다. 학술회에서는 <구글 베이비> 이외에도 아이를 빼앗긴 입양모의 목소리를 담은 <회복의 길 Resilience>이 상영되었다. 지구의 한편에서는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입양아’란 이름으로 국경을 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자를 얻기 위해 정자와 난자가 착상할 자궁을 찾아 여행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제 신용 카드만 있으면 당신의 성별에 관계없이 맞춤형 아기를 얻을 수 있다.”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 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이다.

<구글 베이비>는 미국·이스라엘·인도 3개국, 3대륙에 걸친 트랜스내셔널한 아기 생산 방식에 대해 말한다. 이스라엘의 기업가 도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고 소개한다. 게이인 도론은 미국에서 난자 기증자와 대리모 구해 딸 ‘탈리아’ 얻었다. 정자는 자신과 파트너의 것을 함께 썼다. 친구들에게 딸을 선보이는 파티에서 도론은 총경비가 14만 달러나 들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고 말한다.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에 모두들 놀라고, 도론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도론은 인도 구자라트주의 아난드에서 체외수정 및 대리출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야나 파텔(Nayana H. Patel) 박사의 인터넷 광고를 발견한다. 그녀는 함께 일하는 대리모들을 데리고 광고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대리모 여성들은 겸손하고 착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앙심도 깊고 모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리모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파텔 박사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돕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대리모가 받는 대가는 6,500달러, 약 700만원이다. 파텔은 대리모를 자원해 해외 커플의 아이를 임신한 약 50명의 여성을 데리고 있다. 그들 중 15명은 출산을 기다리며 병원 부속의 호스텔에 기거하고 있다. 일부 대리모들은 두 번째 대리모 행위를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백인 아기를 낳은 한 산모는 아기를 보여주자 흐느낀다. 아기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백인 커플에게 넘겨진다.

도론이 보기에 인도는 아웃소싱하기에 최적지이다. 기업은 인도로 프로그래밍 업무를 이관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 대리출산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임신출산도 인도에 아웃소싱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도론의 구상이다. 도론은 나야나 파텔을 만나러 인도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백인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체외수정까지 마치고 수정란을 냉동한 상태나 배아 상태에서 인도로 보내서 출산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제안한다.

사업을 시작한 도론은 온라인 남자 기증 사이트를 바빠 서핑한다. 남자 기증 사이트는 마치 온라인 미팅 사이트 같다. 클릭하면 기증자 여성의 사진이 클로즈업된다. 대부분이 백인에 금발, 푸른 눈이다. 도론은 냉동배아 용기를 들고 인도의 거리를 바빠 걸어간다. 파텔의 병원에 고용된 대리모들이 불룩한 배를 안고 누워있는 장면을 위에서 비추며 영화는 끝난다.

III.

<구글 베이비>에서 보여주는 생식산업(fertility industry)의 분업은 왜 미국, 이스라엘, 인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난자 기증자와 생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임클리닉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같은 북서유럽의 커플들은 동유럽 여성들의 난자와 난모세포를 공급받아 스페인, 키프러스, 크레타, 벨리즈 같은 지역의 불임클리닉에서 시술을 받는다.

왜 인도일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설이 있고 법적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 이외에도 비용이 싸다는 것이 중요한 유인 요인이다. 생식 산업에서 인도가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저렴한 비용이다. ‘제3세계 가격으로 제1세계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비 프로듀서’ 도론도 말하지 않는가, 인도는 아웃소싱에 최적지라고. 영미 우수 기업의 텔레마케팅 센터가 인도로 이전하듯이, 대리출산이라는 고비용 산업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인도로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사실 인도는 생식보조기술이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다.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이 영국에서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인도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시험관아기 두르가(Durga)가 태어났다. 이 사례는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생식보조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 인도가 생식산업을 포함한 의료 관광(medical tourism)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난자를 파는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녀들은 가련한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생식시장의 행위자들이다. 신자유주의는 말한다. 돈이 없으면 무엇이랴도 팔아서 자신을 가꾸라! 난자를 팔아 번 돈은 대학등록금이 되고, 성형수술비가 되고, 교외의 근사한 주택이 된다. 생식시장에서 선호하는 멋진 외모와 뛰어난 유전형질을 가진 몸은 ‘정상적 몸’으로 준거 기준이 된다. ‘비정상적 몸’은 정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자기검열과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이어트, 운동, 성형 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해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자기배려의 기술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태어날 세대에 대해서도 엄정한 선택을 한다. 자기배려의 기술로서 유연한 우생학(flexible eugenics)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신자유주의와 유연한 우생학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리모 여성들은 어떠한가? 대리모를 희망하는 인도 여성들은 남편의 손을 잡고 클리닉을 방문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교육하고 집을 사기 위해 대리모 산업에 뛰어든다. 사실 빈곤이라는 요인을 빼놓고는 대리모 행위를 설명할 수 없다. 아난드의 병원에 온 대부분의 대리모들은 인근 마을에 사는 가난한 여성들이다. 대리모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것이 여성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0달러에 불과한 인도에서 3,000~8,000달러를 지급받는 대리모는 고소득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난자 기증과 대리모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인도를 잇는 시장과 유사한 생식시장이 일본·한국·중국 사이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는 모성을 더욱 강고한 가치로 만든다는데 있다. 바이오크로싱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시대에 모성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진다. 난자 기증자, 대리모, 양육자 중에 ‘엄마’는 누구인가? 모성의 정의는 흐려지지만 역설적이게도 모성 이데올로기는 더 확고해진다. 시험관 시술, 대리모 출산 등등 유력한 선택지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여성에게 모성을 포기한다고 이기적이고 비정하다고 비난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으로 한국인의 수가 줄어들간다는 위기의 시대에 비용 몇 천 만원이 아까워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결책은 난자 거래와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부 개입을 통해 규제한다 하더라도 대리모 행위의 적정 가격 설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의 제공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생식 시장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되는 생식의 자기결정권과 생식의 자유에 기반해 성립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구글 베이비>를 보고 나서 이렇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당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인도 대리모 여성이 흘리는 눈물을 상쇄할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인가? 아이의 웃는 얼굴에서 대리모의 눈물을 떠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가난한 이웃 여성의 몸을 볼모로 삼는 ‘비인간적’인 ‘인간’ 재생산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일은 시작될 것이다. 그래야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노동’이 다른 여성의 ‘소외된 몸’을 담보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래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갈 희망이 싹틀 수 있다.

woyeom@hanmail.net